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 중국조선어의 신어 생성 양상 연구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JIN YANG

문학석사학위논문

# 중국조선어의 신어 생성 양상 연구

지도교수 채영희

이 논문을 문학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JIN YANG

# JIN YANG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24일

위원장 언어학박사 김희섭 (인)

위원 문학박사 권성미 (인)

위원 문학박사 채영희 (인)

# 목 차

Abstract .....	v
<b>I. 서 론 .....</b>	<b>1</b>
1.1.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1.2. 선행연구 .....	2
1.3. 연구방법 .....	6
<b>II. 이론배경 .....</b>	<b>8</b>
2.1. 중국 조선족 언어의 형성 .....	8
2.2. 조선족의 언어 사용 현황 .....	11
<b>III. 중국조선어 신어의 생성 .....</b>	<b>14</b>
3.1. 조선어 신어의 합성어 .....	16
3.2. 조선어 신어의 파생어 .....	19
3.2.1. 접두파생어 .....	20
3.2.2. 접미파생어 .....	26
3.2.3.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 .....	38
3.3. 조선어 신어의 축약어 .....	39
3.4. 조선어 외래어 신어 .....	44
3.4.1. 외래어 신어의 유입방식 .....	45
<b>IV. 중국조선어의 신어 형성된 요인 .....</b>	<b>51</b>

4.1. 사회적 요인 .....	52
4.1.1.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변화 .....	52
4.1.2. 조선어 사용자 층의 변화 .....	52
4.1.3. 이중언어 교육 .....	53
4.2. 심리적 요인 .....	54
4.2.1. 민족의식의 약화 .....	55
4.2.2. 새로움을 추구 .....	55
4.2.3. 경제성을 추구 .....	56
4.3. 언어접촉 요인 .....	57
4.3.1. 북한문화어의 영향 .....	57
4.3.2. 한어의 영향 .....	58
4.3.3. 한국표준어의 영향 .....	59
<b>V. 결 론</b> .....	<b>61</b>
참고 문헌 .....	69
국문 초록 .....	74

## 〈표 차례〉

<표 1> 길림성 조선족학교 숫자의 변화 .....	12
<표 2> 신어에 대한 정의 .....	14
<표 3> 공식적인 기관에서 신어에 대한 정의 .....	15
<표 4> 명사+명사 .....	16
<표 5> 동사+명사 .....	18
<표 6> 형용사+명사 .....	18
<표 7> 부사+명사 .....	19
<표 8> 고유어 접두사 파생어 .....	22
<표 9> 한자어 접두사 파생어 .....	23
<표 10> 접두사와 합성어 .....	26
<표 11 > ‘-기, -이, -음’의 분포의 제약성 .....	28
<표 12> 고유어 접미사 파생어 .....	28
<표 13> 한자어 접미사 파생어 .....	31
<표 14> 접미파생어와 어근 .....	37
<표 15> 접두사와 접미사 파생어 .....	38
<표 16> 접미사와 접두사 파생어 .....	39
<표 17> 음운 줄임형 축약어 .....	40
<표 18> 앞부분 자름형 축약어 .....	41
<표 19> 뒷부분 자름형 축약어 .....	41
<표 20> 중간부분 절단 형 축약어 .....	42
<표 21> 앞뒤부분 자름형 축약어 .....	43
<표 22> 머리음절형 축약어 .....	43

<표 23> 꼬리음절형 축약어 .....	44
<표 24> 차용으로 받아들인 신어 .....	46
<표 25> 중첩사용된 외래어 .....	47
<표 26> 축약형태로 유입된 신어 .....	49
<표 27>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주당 한국어와 한어에 배정된 강의시간비교 · .....	54
<표 28> 한자어 접두사 분류 .....	62
<표 29> 한자어 접미사 분류 .....	63



# A Study on the New word Formation of the Korean Language in China

YANG J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creation of new words is inevitable because language is constantly changing with changes and developments in society. In particular, advances in technology and sharing information have led to an explosive rise in new words and a diversification of the ways in which new words were created. Like the term "mirror of society," new words can not only record the changes and history of society but also reflect the way people perceive and think.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aspects of new words being created by considering new Chinese words.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chapter 1, we describe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an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divided into three parts: research on the meaning change and use pattern of each species,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nese on the Chinese language, Respectively.

In Chapter 2, we examined the formation of Korean - Chinese society, the formation of Korean language and the use of language.

In Chapter 3, we discuss the production of the new language in four parts: the synthesis of the Korean language, the compound language of the Korean language, the derivative language of the Korean language, the abbrevi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foreign language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Korean language, the terms "compound word" and "derivation language" occupy the highest portion of the total words. In the compound word of the new language, we look at the five parts of compound nouns: the combination of nouns and nouns, the combination of verbs and nouns, the combination of adjectives and nouns, and the combination of adverbs and

nouns. It can be seen that this method is a load calculation method.

The number of suffixes of suffixes is more than that of suffixes.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suffixes with high productivity in the suffixes of Chinese characters. The coined suffixes and two or more Chinese word nouns combined with the root word are productive. This can be regarded as a type of "Shin" which is a combination of synthesis and derivation. It is also a feature that distinguishes between North Korean and Korean standard words.

The double derivation of Chinese character prefix and suffix in the derivation language occupies a large part, so that the productivity of the new language is increased and the meaning weight is placed on the suffix. However, in the case of double derivation by combining Chinese character suffix and Chinese character prefix, semantic weight is placed in the prefix.

The abbreviations of the Korean word for slang can be divided into phonemic type and truncated type, and head syllable type and tail syllable type. The phonetic short form of the coined word appears more colloquially than in the written language.

There are many cases where foreign languages are borrowed from the Korean language. This study classified the new word into borrowed word and the new word which came in abbreviated form. There is also a superposition of words used by borrowing. In addition, the terminology of foreign words in the Korean language has a lot of jargon. This shortened form is very productive in the language because it emphasizes economics.

In chapter 4, we examined the factors that generate many Chinese words in the construction of Chinese vocabulary after reform and opening. We examined the three factors such as specific social factors such as Chinese reform and openness, psychological factors, and linguistic factors.

Chapter 5 summarizes the contents of Chapters 1 to 4.

In general, this study examined the generation method of the Korean Chinese words, and found out how the existing words were created by the new words and how the foreign words were introduced into the Chinese-Korean vocabulary system through some methods and paths. This

implies that the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exical characteristics and vocabulary system of the Chinese language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and the study on the generation of the Chinese spoken language were made. The Korean, North Korean, and Korean standard languages are the same ethnic languages and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due to their history and language environment. This is not only inconvenient in communication, but also has become a subject of debate in the Hanguk, which is misrepresented in places such as sightseeing spots and restaurants. Thus, it is necessary to study more systematically the research on the creation of coined words.



# I. 서론

## 1.1. 연구목적과 필요성

중국은 56개 다민족 국가이며 그중 소수민족은 55개이다. 조선족은 소수민족 중에서 인구수가 비교적 많은 민족으로서 중국 동북지역인 료녕성(遼寧省), 흑룡강성(黑龍江省), 길림성(吉林省)에 주로 분포되어있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중국어와 조선어를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50년 가까이 여러 분야에서 단절된 상태기 때문에 정치제도, 경제발전과 문화형태가 다르게 이루어져 중국(조선어<sup>1)</sup>)와 북한문화어 한국어사이에 차이가 보이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의 지역 인접성으로 하여 조선어의 음운, 형태, 의미가 북한의 영향을 받아 언어규범도 북한의 언어규범과 가까운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조선어와 한국어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중에서 어휘상에서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인다.

1992년 한국과 중국 수교한 이후 무역 경제와 문화 활발하게 진행되고 인터넷, TV, 뉴스 등 각종 매체 발달함에 한국어와 접촉하는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한국어의 언어규범의 유입으로 조선어 언어규범과 한국어

---

1)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문화어'라고 하고 중국의 조선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조선어'라고 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편의상 '조선어'라고 사용하기로 한다.

언어규범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어와 한국어간의 이질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사소통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식당에서 잘못된 한글 표기가 늘고 있어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또한 조선족들이 학사나 석사과정 마치고 한국어 가르치는데 조선어와 한국어 어휘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의 중국 조선어는 한국어와 어휘에서 뜻은 같지만 표기형태가 다른 경우가 있고 또한 표기형태가 같지만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나라의 정치, 가치관, 문화의 차이를 떠날 수 없다. 조선어의 음운, 의미, 통사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신어 형성에 대한 연구는 아주 적은 편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어 어휘의 신어형성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 1.2. 선행연구

중국조선어 신어에 대한 연구는 단순하고 내용이 빈약하다. 중국조선어 신어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의미변화와 어종별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 신어에 대한 한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규범화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신어의 생산원리나 조어방식 등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어 신어 의미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김순녀(1999), 김영희(2002), 孫正鎬(2011)등이 있다.

김순녀(1999)는 조선어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조선어 어휘의 의미 변화는 중국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의미가 전이된 일부 조선어 단어들은 한국어 단어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영희(2002)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족(族)’ 계열 신어는 한자어, 고유어, 혼종어 등 어종에 따라 분류하고 생활양식, 가치관을 반영한 것, 계층을 나타내는 것, 특징을 나타내는 것, 컴퓨터 혹은 텔레비전과 관련된 것 등으로도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孫正鎬(2011)는 조선어와 한국표준어 어휘와 달라지게 된 요인을 사회, 심리, 언어요인으로 나누어보고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 어휘의 차이를 보는 원인은 규범상의 문제라고 하였다.

조선어 어종별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심희섭(1986), 민홍(1993), 김영희(2002), 유춘희(1999) 등이 있다.

김영희(2002)는 조선어 신어‘족(族)’ 계열 신어에 대하여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민홍(1993)는 장편기사보도문인 ‘인기화제로부터 본 연결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개혁 개방 후 중국조선어에 나타난 신어와 그 사용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김성수(1988)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조선어에 들어온 외래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고찰하였다.

심희섭(1986)는 신어 1,320개를 추출하여 중국조선어 신어의 산생 원인과 신어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명사의 변화가 동사나 형용사 및 부사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유춘희(2002)는 2001년 1월분 신문에서 443,425자의 언어자료 (조선의 로동신문, 한국의 한겨레신문, 중국의 연변일보)를 계량학적방법에 근거하여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세 나라의 어휘사용을 대비분석하고 세 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들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한어(漢語)로부터 어휘차용 된 문제는 어휘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면서 언어규범과도 연관되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신어에 대한 한어의 영향

에 초점을 둔 연구는 강보유(1990), 김기중(2002), 김덕모(1990), 리역철(1989), 최윤갑(1991), 최윤갑(1990)등이 있다.

강보유(1990)는 의미침투를 세 가지로 다루었다. 사회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의미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언어적 의미가 조선어 단어에 침투되고, 사회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한어적 의미가 조선어에 많이 침투된다.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개념의 출현은 또 이미 낡투로 되어버린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보충하여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한어의 영향으로 낡투를 적극적으로 새롭게 살려쓰게 된다고 하였다.

김기중(2002)은 개혁 개방 후 직접 옮김 법에 의한 조선어 단어의 뜻 변화를 일반용어에 생긴 새 뜻에 의한 뜻 변화, 전문용어의 사회적 통용화와 관련된 뜻 변화, 낡은 어휘의 복귀와 관련한 뜻 변화에 대하여 다루었다.

김덕모(1990)는 한어어휘에 대한 차용수법을 분류하여 직접적인 차용을 음차와 음독, 의역으로 다루었다. 조선말속에 섞어 쓰고 있는 한어어휘 성분들을 보면 구두어(口頭語)에 음차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면(書面)에서는 음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문, 잡지, 서적과 같은 지상(紙上)에서 음차가 적고 음독이 많은 것은 조선말의 서면에서 한자에 대한 조선말 음독법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고 구두에서 음차대로 쓰이던 단어들이 서면에 와서는 흔히 음독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최윤갑(1990)은 한어에서 차용한 차용어가 많다. 그 가운데서도 절대다수가 전통한자음에 의하여 음역한 어휘들이다. 의역한 단어, 단어결합, 성구도 많이 있는 한어어휘를 모조하여 만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한어가 조선어에 큰 양향이 아주 크며 전통한자음의 작용이 아주 크고 앞으로도 한어의 영향은 계속될 것이며 종통한자음의 작용도 오래갈 것이라고 하였

다.

최윤갑(1991)는 한어 차용어가 조선어에 들어오는 경우를 서사어와 구두어로 다루었다. 서사어로부터 들어올 경우 일반적으로 조선 한자음에 의하여 음역하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구두어로부터 들어올 경우 일반적으로 현대 한음에 의하여 음역하는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다.

리득춘, 김기석(2002)는 조선어 어휘발전중의 약간의 인식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을 제기하였다. 첫째는 한자어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여야 한다. 둘째는 고유어는 여전히 조선어 어휘의 주체라는 것이며 셋째는 신시기 외래어에 대한 규범은 ‘탄성(彈性)’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리역철(1989)는 사회주의 시기에 새 단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민족 화, 대중화, 과학화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조선어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규범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김기중(2000), 남일(2011), 백옥란(2010) 등이 있다.

김기중(2000)은 어휘변이와 동태적 규범화작업, 규범적인 새말이 갖추어야 할 조건, 한자어 자체의 대량적인 새말조성과 조선말 규범화작업에 대하여 다루었다. 새말은 기존어휘구성에 없던 낱말인데 새로운 역사시기 중국 조선어에서의 새말산생은 한어의 영향, 국제적 래왕 및 한국의 영향과 직접 관련된다고 하였다. 사회발전의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역사시기 새말은 우선 조선어 조성법에 부합되면서 공백을 메우는 원칙, 명확성원칙, 효율성원칙, 상호보충의 원칙 등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남일(2001)는 조선어 명사, 술어통일안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개혁개방후 20여 년간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연변일보’에 실린 문장들을 조사 자료로 하였다. 규범어 사용실태를 문화와 예술분야, 농업과 목축업분야, 경제분야, 신문과 출판 보도 분야, 정치 법률, 철학분야, 교육 분야 등 분야별

로 다루었다.

백옥란(2010)은 한국, 조선, 중국 조선어의 언어규범의 차이점과 그 통일 방안을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1.3. 연구방법

언어는 사회의 역사 문화 등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급속한 발전함에 따라 언어도 변화하게 마련이다. 나라의 제도와 체제는 언어에 반영하게 된다. 본고에서의 연구대상은 중국 조선어판(朝鮮語版)신문과 잡지를 대상으로 했다. 신문은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현 시기의 사회 사용되는 사회언어의 견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대중성이 높다. 조선어판(朝鮮語版)잡지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 글을 투고의 형식으로 탑재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가들의 시, 단편소설, 에세이, 수필이기 때문에 신문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잡지의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어휘들은 조선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현실구어에도 가깝다. 아래는 본고에서 검토한 한국과 중국 수교 이후의 자료들이다.

신문:

『연변일보』 2010년1월분-2017년1월분.

『흑룡강신문』 2010년1월분-2017년1월분.

잡지:

『연변문학』 2015년.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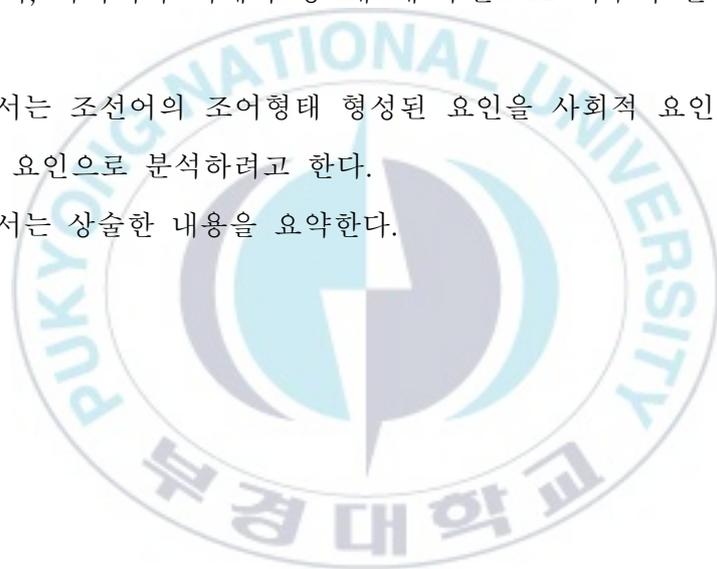
본고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밝혔고 지금까지 조선어에 대한 선행연구를 크게 중국과 한국 수교 전후의 연구와 중국어와조선어, 조선어와 한국어 등 네 개 부분으로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조선족 언어의 형성 그리고 언어사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조선어 신어형성 대해서 다루고 조선어 신어의 형성을 합성어, 파생어, 축약어와 외래어 등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조선어의 조어형태 형성된 요인을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언어적 요인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제5장에서는 상술한 내용을 요약한다.



## II. 이론배경

### 2.1. 중국 조선족의 언어의 형성

조선족은 정치적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주 민족이다. 박금해(2004:98)에서는 조선족 이주를 3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선족은 19세기 중엽 자연재해 맞는 조선 농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져 강을 건너 중국 동북에 이주하면서 조선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 되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20세기 초엽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조선 군대의 강제해산, 한일합병 등 일제의 본격적인 조선 침략으로 조선의 국운이 날로 기울어져 가는 형세 하에서 민족의 자유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해외독립운동 기지를 구축하고자 수많은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중국의 동북일대와 러시아 연해주일대에 망명하였다. 일제의 경제적인 착취와 정치적 압박에 못 이겨 많은 백성들도 동북으로 이주하였다고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9.18” 사변<sup>2)</sup> 후 일제는 동북의 개발에 조선반도의 인력을 활용하고자 백만 이주계획을 제정하고 강제적으로 조선인을 이주시켜 집단부락, 안전농장 등 형식의 촌락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이주민들의 출신지역도 함경도와 평안도를 벗어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남부일대까지 포함한 전 지역으로 넓혀지게 되었다.

2) ‘9.18’사변을 만주사변이라고도 한다. 일본제국이 1931년 9월18일 관동군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의 병참기지를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벌인 침략전쟁을 말한다.

다고 하였다.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하여 조선족들은 중국 사회에 정착하여 ‘중국 조선족’ 형성되었다. 그리고 민족 자치구역정책에 의하여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형성되었으며 1958년 장백조선족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이 성립되어 조선족들 고유의 언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고 한(漢)족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중국 건국 전에는 중국과 한반도의 조선어는 단일성(單一性)을 가지고 있다. 1933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고, 1936년 《조선어표준말모음》을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조선말은 통일한 표준말 있게 되고 이 시기의 맞춤법은 지금 한글 맞춤법의 기초로 되었다. 중국의 조선족은 조선에서 이주해온 민족으로서 한반도의 조선민족과 공통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문자도 완전히 같다. 그것은 중국에 이주한 후 동일한 지역에 집거하고 있고 거의 다른 민족과 접촉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언어와 문자를 보존해온 것이다. 이것은 중국 해방 전에는 중국조선족 사용하는 언어문자는 한반도의 조선어와 완전히 같고 단일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 건국 후부터 중한 수교 이전의 중국 조선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는 남, 북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실행하면서 생활환경이 다르고 서로 간의 교류도 단절된 상태이다. 그리하여 조선어도 점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평양의 조선말을 문화어로 정하게 되면서 이것은 남북한 조선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도 1936년에 개정된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사용해왔다. 1988년에 한국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개정하고 다시 반포하였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나라에서는 교

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표준어 규범》 이랑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역시 《조선말규범집》을 사용하고 있으며 1945년 9월에 북한은 《조선어철자법》을 공포하였다. 여기에서는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이상과 생활 감정에 맞도록 규범화한 북한의 공용어라고 하였다.

표기법에서 한국은 1946년 9월에 조선어학회 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사용하고 있다. 후에 맞춤법을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고치라는 사회적요구가 높아지면서 한국 문교부에서 실제 언어사용 주체인 언중들의 여론을 재 수렴 하고 검토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1987년 9월 《한글맞춤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였다. 이것은 1988년 1월에 고시된 《한글맞춤법》이다.

1947년에 북한에서도 맞춤법을 개정하였다. 1949년부터 한자의 사용의 폐기하고 1954년 북한에서 《조선어철자법》을 반포하여 새로운 조선어철자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6월에는 북한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표준발음법을 포함한 《조선말규범집》을 발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북한과 한국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선어규칙을 규정함에 따라 남북조선어의 차이도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조선어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7년 이전에 중국조선어는 북한의 영향을 받아 조선어 만의 특색이 없었다. 1977년 이후에 중국조선어는 북한어의 기초에서 자기들만의 규범원칙을 제정하여 중국조선어를 발전시켜 중국문화 보물고(寶物庫)를 풍부히 하였으며 중국특색의 민족 언어생활을 만들어냈다. 중국조선어는 다른 언어 환경에서 한반도 조선어와 공통성과 차이성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언어는 다른 언어 환경에서 본 민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이 다름에 따라 변이현상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와 사회는 서로 영향주고 변화를 일으킨다. 중국조선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물, 새로운 관념이 나타나 조선어로 새로운 어휘로 그들을 표시하게 된다.

중국과 한국이 수교된 이후에는 중국조선어는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즉 중국어, 조선어, 한국어의 세 가지 특성이다. 중국조선어, 조선어, 한국어는 동일한 언어인데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 2.2. 조선족의 언어 사용 현황

중국은 다민족 나라로서 많은 언어 및 문자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중국의 공용 언어는 한어(漢語)이다. 이득춘 (1994) 에서는 한민족이 중국 땅에 이민한 그날부터 한중 이중 언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중국어와 조선어 이중언어 사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그에 따른 조선어문 정책에 의하여 조선어가 법적인 보증을 받음으로써 실현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9년 초에 채택된 「중화인민정채협상회의 공동강령」, 1954년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년 수정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들에서는 모든 중국의 여러 민족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채택된 헌법 제4조 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구역 자치법」 제21조에는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 ..... 당지에서 혼용되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통용되는 언어 문자로 동시에 직무를 집행할 때 구역 자치 민족의 언어 문자를 위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한바 여기서 말하는 “구역 자치 민족”이란 비록 그 지구(地區)에서의 주체 민족인 것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놓고 보면 조선족이 주체민족으로 되고 있으며 “구역 자치 민족의 언어 문자”란 바로 한국어와 한글을 가리키는 것이다.

셋째, 한국어와 한글로 조선족의 문화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조선족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할수 있게 되었다. 일찍 1938년 중국공산당 제6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모택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수민족의 문화, 종교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에게 한어(漢語), 한문을 배우라고 강박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내어 그들이 자기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문화, 교육 사업을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이득춘:1994:60)

이런 사회적 배경 하에 조선족들은 민족교육에 대하여 노력해왔고 민족 학교가 설립하고 교육에 힘써왔다. 아래 표 <표 1> 에서는 길림성조선족 학교 통계자료이다.

<표 1> 길림성 조선족학교 숫자의 변화

학교	1949년	1985년	1993년	2002년	2010년
소학교	662	555	589	180	47
중·고등학교	40	100	133	83	42
합계	702	655	722	263	89

(출처:안병삼 『중국길림성 조선족학교 교가와 그 연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 이후 소수민족학교를 설립하고 소수민족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조선족학교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안병삼(2015)에서 첫째, 중국이 지속적으로 실시한 가족계획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와 한국과 중국 수교 이후 대부분 농촌에 살던 조선족들이

중국 연안의 대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거나 한국과 일본 해외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농촌지역의 조선족 집거지가 급속도로 붕괴되었고, 농촌 학교의 학생도 줄어들면서 폐교하거나 통합하는 학교가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조선족학교를 다니지 않고 한족학교를 다니기 때문이다.

박금해(2004), 마금선(2009), 황기우(2004) 에서는 중국 조선어교육에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금해 (2004) 에서는 인구유동으로 인한 조선족 인구의 급감, 민족교육의 갈등, 교사분포의 불균형 문제와 조선족 결혼가정이 심각함에 따라 조선족 교육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금선 (2009) 에서는 인구의 유동과 감소 원인으로 인해 민족학교가 감소되고 있고, 한어와 한족학교의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황기우 (2004) 에서는 조선족 농민의 도시 진출과 한국진출의 직접적인 결과는 문화영토였던 조선족 마을의 공동화와 해체를 가져왔다. 이런 민족 마을이 해체 된 것은 조선족 민족교육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족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족들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텔레비 방송, 라디오 방송에 조선어 전용채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로 출판된 신문, 서적 등도 있다. 이것은 조선어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Ⅲ. 중국조선어 신어의 산생

개혁개방이후 조선어 신어가 가장 많이 생겨났다. 신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 등을 표시하기 위해 기존의 어휘를 새롭게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여 만든 단어를 말한다. 많은 학자들도 신어에 대한 용어와 정의가 통일되지 않았다. 아래에 학자들 신어의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신어의 정의를 대해 살펴보겠다.

<표 2> 신어에 대한 정의

김희영(1999)	신어의 개념은 '새로운 명명(命名)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나고 기본어휘소에 대응되지 않은 새로운 표현으로서, 대중에게 사용되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범위에는 은어, 속어, 유행어, 단순한 사전 미등재어는 제외되며 특정 집단을 벗어난 전문어가 포함된다.
남기삼(1983)	이미 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며 이미 있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 그리고 차용된 외래어도 포함.
문금현(1999)	새로 생겨난 어휘에 대한 용어로는 그간 '신어(新語)', '신조어(新造語)', '새말' 등을 사용해 왔다. '신어(新語)'라고 하면 기존 언어와 유연성 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 기존의 언어재를 그대로 이용해 만든 말,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말, 외국에서 차용한 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조어(新造語)는 고유어든지 외래어든지 간에 기존 언어 재를 새롭게 조합해서 만든 말이나 기존 어휘의 일부를 잘라내어 형태를 변화시켜 만든 말을 의미한다.
백영석(2001)	신조어는 기존의 言語材를 바탕으로 하고 형성된 新語이다. 기존의 言語材는 語種에 따라 고유어요소, 한자어요소, 외래어요소로 나눌 수 있다.
심희섭(1986)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교육 등의 변화발전은 조선어 새 단어가 생기게 되는 요인이다. 신어는 사회의 변화발전등 사

	회적 요구에 의하여 산생되고 기존의 단어에 새 뜻을 부여해준다.
유춘희(2001)	기본어휘를 토대로 하여 기본어휘의 새로운 어휘구성이 새로운 뜻을 가지고 쓰이는 어휘.
이승명(2001)	기존의 말과 유연성 없이 완전히 새로 된 말은 없고 대부분 기존의 의미재를 사용하여 만들었거나, 외래어의 기용, 또는 기존어를 새 국면에 기용함으로써 의미를 추가하여 만든 말.
임지룡(1997)	대상이나 개념은 주로 새롭게 생겨난 것이 되지만, 기존의 대상이나 개념에 대하여 제대로 된 낱말이 없을때도 해당된다.
최장수(2002)	새로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이외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신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3> 공식적인 기관에서 신어에 대한 정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새로 생겨난 사물 및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 또한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포함된다.
위키백과	신어는 신조어라고도 하며 새로 생겨난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를 가리킨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 및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표 2>에서 보면 남기심(1983), 심희섭(1986) 등은 신어생성 원인에 대하여 신어의 정의를 내렸고 김희영(1999), 문금현(1997), 백영석(2001), 유춘희(2001), 이승명(2001), 임지룡(1997)는 신어의 조어적 측면으로 연구하여 신어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외래어를 포함하는 정의로는 남기심(1983), 최장수(2002)등이 있다.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서 보면 새로운 어휘에 대하여 ‘신어’, ‘새말’, ‘새명사’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있거나 새로

생겨난 말,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말, 다른 언어에서 차용된 말'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신어'라는 정의를 내리겠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조선족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언어사용면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물,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대량으로 생성되었다. 신어의 대량적인 생성은 조선어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한국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구분하는 특징이기도 한다. 제3장에서 중국조선어 형태에 의해 생성된 신어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 3.1. 조선어 신어의 합성어

신어는 대부분 파생법과 합성법으로 생성되는데 합성법은 신어를 더 많이 생성된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형태소가 결합된 단어이다. 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들 계속 속출하고 있다. 신어의 산생은 이런 새로운 사물과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합성어의 구조적 특징을 품사별로 살펴볼 것이다. 품사별로 살펴보면 합성형태는 모두 합성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 합성명사

<표 4> 명사+명사

명사	명사	합성명사
가격	인상	가격인상
가격	제도	가격제도
가치	관념	가치관념

결손	가정	결손가정
경쟁	의식	경쟁의식
경영	관리	경영관리
경제	교류	경제교류
경제	성장	경제성장
경제	안정	경제안정
경쟁	의식	경쟁의식
교육	고문	교육고문
교환	경기	교환경기
국제	경쟁	국제경쟁
기업	관리	기업관리
개발	건설	개발건설
개발	계획	개발계획
개혁	개방	개혁개방
개혁	의식	개혁의식
개혁	조치	개혁조치
개혁	정신	개혁정신
농촌	개혁	농촌개혁
다각	경영	다각경영
단체	보험	단체보험
도시	개혁	도시개혁
등록	자본	등록자본
도시	개혁	도시개혁
대외	개방	대외개방
렴결	자률	렴결자률
렴결	청정	렴결청정
록색	기업	록색기업
록색	식품	록색식품
소유	구조	소유구조
목표	관리	목표관리
문명	건설	문명건설
물자	체제	물자체제
미용	수술	미용수술
민구	권리	민주권리
법률	기제	법률기제
범죄	행위	범죄행위

서부	대개발	서부대개발
세가지	대표	세가지대표
우편	송금	우편송금인기
인재	적자	인재적자
영리	목적	영리목적
위성	방송	위성방송
정리	실업	정리실업
주택	제도	주택제도
중국특색	사회주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지식	경제	지식경제
희망	공정	희망공정 <sup>3)</sup>
향진	기업	향진기업 <sup>4)</sup>

<표 5> 동사+명사

동사	명사	합성명사
알다	권리	알권리
굽다	빵	구운빵
찌다	교자	찐교자
앉다	궤	앉은궤

<표 6> 형용사+명사

형용사	명사	합성명사
마르다	국수	마른국수
느리다	동작	느린동작

- 3) 중국 청소년 발전재단이 받기한 것으로 모금과 기증을 통해 빈곤지역의 학업을 중단한 아동을 돕기 위한 조치와 활동.
- 4) 중국의 기업형태는 국가가 소유하는全民(全民)소유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집체(集體)소유제, 개인 또는 합작·합자·외국인 단독 투자3자(三資)기업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향진기업은 집체소유제를 말한다. 한국의 읍면에 해당하는 향진소속 주민들이 중소기업을 형성, 경영과 생산 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며 한국의 농촌 새마을 공장과 비슷하다.

가늘다	살빚	가는살빚
-----	----	------

<표 7>부사+명사

부사	명사	합성명사
급	하락	급하락
돌연	변이	돌연변이
돌연	사망	돌연사망
뽕죽	구두	뽕죽구두
순간	가열기	순간가열기
월등	급	월등급
월등	반	월등반
월등	상품	월등상품
월등	품질	월등품질
월등	인재	월등인재
우선	모집	우선모집

<표 4>, <표 5>, <표 6>, <표 7>보면 합성명사는 명사와 명사, 동사와 명사, 형용사와 명사, 부사와 명사의 결합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명사와 명사의 결합과정은 가장 단순한 산출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자어명사와 명사의 결합이 가장 생산적이다. 이에 따라 한자어들이 결합하여 정치경제분야와 의식구조에 관련된 합성어가 산생되어 언어생활에서 새로운 사물이나 명칭, 혹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기에 유용하다.

### 3.2. 조선어 신어의 파생어

‘파생’은 문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의 결합’이다. 파생법에 의한 신어의 산생은 접사에 의한 파생과 접사에 의하지 않는 파생으로 나눈다. 접사에 의한 파생은 접두사와 접미사 파생이 있고, 접사

에 의하지 않는 파생은 영 변화와 내적변화에 의한 파생이 있다. 본고에서는 접사에 의한 파생으로 생산된 신어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즉 파생어에 의한 신어의 산생을 접두사와 접미사파생 그리고 접두접미사 파생 등 세 가지 양상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 3.2.1. 접두사 파생어

접두파생법은 접두사가 어근에 붙어서 어휘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파생어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서 어근의 앞에 놓이는 구성성분을 파생어라고 한다.

접두사가 되는 보편적인 과정은 합성어의 선행어기가 의미 또는 형태 변화에 의해 어기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선행어기가 의미론적, 음운론적 어휘화를 통하여 원래의 어기와 관련성이 없어지고 몇몇 후행어기에 밀착되어 더 이상의 분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1995)

그러나 현대 조선어의 공시적인 관점에서 어근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접사화 하였더라도 어근이었을 때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근과 접사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김정은(1995)에서는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형태, 분포, 기능, 의미 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기준1: 형태측면에서 살펴보면 접두사는 형태변화가 일어난 특정한 조선의 어기와 결합하는 의존성을 띤다.

기준2: 분포측면에서 살펴보면 접두사는 분포의 제약을 받는다.

기준3: 기능측면에서 살펴보면 접두사는 비분리성과 수식의 제약성을 보인다.

기준4: 의미면에서 보면 접두사는 실질형태소가 의미변화를 겪어 추상화된 단위이다.

형태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어근에 접두사가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다시’라는 의미가 결합하기 쉬운 조어형태인 ‘재(再)-’로 하여 쉽게 기존어와 결합하게 된다. ‘재강조’는 ‘재(再)-’에 ‘강조’가 결합하여 새로운 표현을 생성되어 ‘다시’로부터 형태변화를 거쳐 의존성을 나타내고 독립된 쓰임을 찾을 수 없고 동작성명사와 결합하는 의존성을 보인다.

분포 측면에서 예를 들면 ‘최(最)-’는 ‘고급, 우수’등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만 결합한다. 따라서 파생접사는 어근에 대한 어휘적인 선택제약을 지니며 제한된 범위의 어근에만 작용된다.

기능측면에서 보면 접두사 ‘비(非)-’는 어근 ‘공개, 공식’등과 결합하여 ‘비공개, 비인류’등 단어를 산생하는데 접두사와 어근사이에 다른 말을 넣어 분리시킬 수 없으며 뒤에 따라오는 ‘공개, 공식’만을 수식하는 수식의 제약성을 보이고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접두파생어 ‘신(新)-’은 어근 ‘기록, 민주주의혁명’과 결합하여 ‘신기록, 신민주주의혁명’ 파생어를 산생시켜 ‘낯선, 신선한, 특이한’ 등의 의미로 추상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서 상술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접두파생법에 의한 신어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고유어 접두사 파생어

<표 8> 고유어 접두사 파생어

고유어접두파생어	표준어	조선어
강-	강다짐, 강울음, 강바람	강조밥 <sup>5)</sup>
군-	군기침, 군대답, 군소리, 군다리미질	군다리미질
개-	개살구, 개머루, 개고생, 개수작, 개지랄	
나-	나들다, 나굴다, 나대다	나덤비다 <sup>6)</sup> , 나굴다 <sup>7)</sup>
날-	날김치, 날것, 날감자, 날벼	
덧-	덧놓다, 덧입다, 덧드러나다,	덧나가다 <sup>8)</sup>
되-	되흘러들다	되흘러들다
막-	막내, 막차	막물
만-	만팔, 만아들, 만물	만사람 <sup>9)</sup>
맞-	맞먹다, 맞견다, 맞반이, 맞홍정	맞다들다
민-	민뉘시, 민머리, 민며느리,	
맨-	맨주먹, 맨몸, 맨눈	
숫-	숫처녀, 숫총각, 숫눈	숫밥 <sup>10)</sup>
쇠-		쇠고래 <sup>11)</sup>
외-	외고집, 외골목, 외다리	외그루 <sup>12)</sup> , 외도토리 <sup>13)</sup>
푯-	푯곡식, 푯나물, 푯눈, 푯사랑	푯남새 <sup>14)</sup>
한-	한가슴, 한겨울, 한나절, 한동안	한본새 <sup>15)</sup>
헛-	헛걸음, 헛나이, 헛기침, 헛소리, 헛수고	헛물 <sup>16)</sup> , 헛불질 <sup>17)</sup>

홀-	홀몸, 홀아비, 홀어머니	
홀-	홀웃, 홀몸, 홀수	홀모음 <sup>18)</sup>
햇-	햇것, 햇곡식	햇쌀

<표 8>에서 보면 조선어의 고유어 접두사는 북한의 문화어와 한국의 표준어의 언어기반이 같기 때문에 고유어 접미사와 어근이 결합되어 생성된 파생어와 북한의 어휘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이고 있다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문화어를 받아들인 수량은 표준어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2) 한자어 접두사 파생어

<표 9> 한자어 접두사 파생어

한자어 접두사	표준어	조선어
간이(簡易)-	간이음식점, 간이식당	간이매매, 간이음식,
고(高)-	고농도, 고밀도, 고소득, 고화질	고과학기술, 고로임, 고명확도, 고밀도형, 고신기술, 고위험군, 고충실도, 고효익,

- 5) [북한어] 반찬 없이 맨밥으로 먹는 조밥.
- 6) [북한어] 까불며 함부로 덤비다.
- 7) [북한어] 나뉘갈다.
- 8) [북한어] ‘엇나가다’의 북한어.
- 9) [북한어] 남의 맡아들을 점잖게 이르는말.
- 10) [북한어] 1.손대지 않은 깨끗한 밥. 2. 술에서 처음으로 푼 밥.
- 11) [북한어] 푸른재빛고래.
- 12) [북한어] 단일경작.
- 13) [북한어] 매인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홀몸.
- 14) [북한어] 익지 않는 채소.
- 15) [북한어] 서로 같은 하나의 본새. 2. 처음이나 마지막이 같은 본새.
- 16) [북한어] 마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물.
- 17) [북한어] 쓸모없이 불을 피우는 일.
- 18) [북한어] ‘단모음’의 북한말.

		고효과, 고효과성, 고효익성,
급(急)-	급부상, 급성장, 급성장세, 급상승	
다(多)-	다민족, 다방면, 다계단, 다당제	다공능, 다기능
대(大)-	대국, 대도구	대개발, 대단결, 대문호, 대진화
로(老)-	로간부	로동지, 로교수, 로선배
랭(冷)-		랑평화, 랭폭력
명(名)-	명배우, 명사수	명선수, 명화가
무(無)-	무허가, 무관세, 무승부, 무책임, 무허가업소,	무포장, 무오염, 무공해납세, 무주정음료
미(未)-	미지급금, 미성년, 미혼, 미지수	미취업률, 미분배리윤, 미지급로무비, 미지급배당금,
반(반)-	반혁명, 반동파, 반공격, 반돌격	반부패투쟁, 반테러
부(副)-	부심판, 부총장, 부교수,	부시험관, 부심
비(非)-	비공개, 비공식	비인류, 비공동소유경제제도, 비등록재산
소(小)-	소팔호, 소도구, 소장인, 소시민	소가전, 소도시
신(新)-	신기록, 신시대, 신세대, 신인류	신민주주의혁명
저(低)-	저온, 저출산	저농도술, 저생산량
주(主)-	주간선, , 주심판, 주연, 주인공	주심
재(再)-	재도약, 재가공, 재가동, 재강조, 재개발, 재건축, 재검사, 재검진, 재계약, 재구성, 재보급, 재설계, 재설치, 재시험,	재건설, 재도입, 재동원, 재발전, 재초빙, 재취직, 재포치, 재혁신

	재정리, 재점검, 재정립, 재조합, 재천명, 재추진, 재취업, 재탄생, 재투자, 재포장, 재파업, 재할인, 재협상, 재협의, 재확인, 재활용	
초(超)	초강대국, 초고속, 초대형, 초만원, 초소형 초진도,	초고속도로, 초상규적, 초희식, 초호화, 초유희광
총(總)-	총돌격, 총동원, 총량	총로선
최(最)-	최고급, 최고봉, 최고령, 최신식, 최신행, 최우수, 최첨단, 최하위권	

'소(小)-', '대(大)-', '로(老)-', '재(再)-', '고(高)-', '초(超)-', '급(急)-', '간(簡易)-', '최(最)-', '다(多)-' 등 한자접두사들은 정도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이다.

'총(總)-'은 범위를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미(未)-', '무(無)-', '비(非)-', '반(反)-' 등은 부정이나 혹은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주(主)-', '부(副)-' 는 순위를 나타내는 접두사 이다.

'신(新)-', '명(名)-', '랭(冷)-' 은 양태를 나타내는 접두사 들이다.

예문의 어휘들을 살펴보면 한자어 접두사의 생산성이 많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상술한 예문에서 '고신기술', '최신식, 최고급, 최고령, 최신행' 등은 '고(高)-' 와 '신(新)-' , '최(最)-' 와 '신(新)-', '고(高)-' 두 개의 한자 접두사가 같이 쓰이며 이중 접두파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파생어에 산생된 신어에서 보면 고과학기술, 초강대국, 초고속도로'등처럼 한자접두사가 합성어와 결합되어 파생어를 산생시키는 양상을

알 수 있다.

(3) 접두파생어와 어근

<표 10> 접두사와 합성어

접두사	어근	어근	파생어
고(高)-	효익	대상	고효익대상
다(多)-	수확	기술	다수확기술
무(無)-	공해	남새	무공해남새
무(無)-	공해	식품	무공해식품
무(無)-	자격	세계	무자격세계
무(無)-	주정	음료	무주정음료
무(無)-	허가	업소	무허가업소
미(未)-	분배	리운	무분배리운
미(未)-	포장	화물	미포장화물
반(反)-	부식	능력	반부식능력
반(反)-	부패	사업	반부패사업
비(非)-	공개	보조	비공개보조
비(非)-	공식	시장	비공식시장
비(非)-	등록	재산	비등록재산

<표 10>에서 보면 ‘고(高)-, 다(多)-’등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접두사파생어와 ‘ 무(無)-, 미(未)-, 반(反)-, 비(非)- ’와 같이 부정이나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사파생어가 두 개의 한자 명사어근과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런 양상은 고유어 접두사에서 보이지 않고 한자어 접두사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한자접두사가 신어를 많이 산출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2. 접미사파생어

접미파생법은 핵심부인 어근과 비핵심부인 접미사가 붙어 단어를 산생시키는 방법이다. 파생어를 구성하는 성분가운데서 어근이 뒤에 놓이는 구성성분을 접미사라고 한다. 김정은 (1995)에서는 접미사의 설정기준을 형태, 기능, 분포, 의미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기준1: 형태에서 살펴보면 접미사는 의존성을 지닌다.

기준2: 기능면에서 살펴보면 접미사는 통사범주의 변화를 일으킨다.

기준3: 분포 면에서 살펴보면 접미사는 분포의 제약을 받는다.

기준4: 의미면에서 살펴보면 접미사는 여기에 어휘적 의미를 첨가 시켜 주기도 하고 어기의 의미에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형태적 측면에서 접미사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하여야 하는 의존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고귀감, 사명감'처럼 '-감(感)은 '고귀, 사명'등 어근과 결합하여 쓰인다.

기능면에서 살펴보면 '-기', '-력(力)'등은 동사어근에 붙어 '시간때우기, 살까기, 기억력, 경쟁력' 등과 같이 통사기능의 변화를 가져온다.

분포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 -이, -음' 등은 특정한 어근과 결합하고 분포의 제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기, -이, -음’의 분포의 제약성

	-기	-이	-음
홀로써-	O	X	X
죽-	X	X	O
외국나들-	X	O	X

<표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홀로써-’는 ‘-기’와 결합하고 ‘죽-’은 ‘-음’과 결합하고 ‘외국나들-’은 ‘-이’와 결합하는 제약성을 갖는다.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우개, 받치개’에서 접미사 ‘-개’가 어근 ‘지우, 받치’와 결합되어 원래의 행위의 의미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혹은 도구의 의미로 전환된다.

아래에서 상술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접두파생법에 의한 신어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 고유어 접미사 파생어

<표 12> 고유어 접미사 파생어

고유접미사	표준어	조선어
-감	구경감, 사위감, 며느리감	
-거리	반찬거리, 이야기거리	
-군	사냥군, 일군	교육군 <sup>19)</sup>
-꾸러기	잠꾸러기,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개	지우개, 쓰개, 받치개	
-기	시간때우기, 홀로써기,	공잡기, 살까기 <sup>20)</sup>
-내기	시골내기, 연변내기	
-네	언니네, 동갑네	
-둥이	귀염둥이, 막내둥이, 얼바람둥이	
-머리	버르장머리, 인정머리	

-살이	살림살이, 시집살이, 타향살이	
-새	모양새, 생김새	
-아지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음	밑음	연기동작뭉음
-이	때밀이, 외국나들이	
-지거리	육지거리	룽지거리 <sup>21)</sup>
-질	주먹질, 가위질, 숟가락질	
-쟁이	멋쟁이, 양복쟁이, 거짓말쟁이	
-찌검	손찌검	혼찌검 <sup>22)</sup>
-투성이	먼지투성이, 땀투성이, 피투성이	

‘-감’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대상이 되는 도구, 사물, 사람,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거리’는 대상을 나타낸다.

‘-군’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기’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내기’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네’는 집안이나 가족 전체를 이르는 뜻을 더하는 말.

‘-둥이’는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머리’는 비하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19) 국가의 교육 정책을 관철하는 데에 모범을 보이는 군에 주는 칭호, 또는 그런 칭호를 받은 군.

20) 다이어트.

21) 점잖지 아니하게 함부로 하는 장난이나 농담을 낮잡아 이르는 말.

22) 봉변을 당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몹시 놀란다.

‘-살이’는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어디에 기거하여 사는 생활 의 뜻.  
‘-새’는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아지’는 새끼를 뜻한다.  
‘-음’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지거리’는 ‘행동하다’를 낮잡은 뜻.  
‘-질’은 도구나 신체부위를 이용해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것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투성이’는 그런 상태의 사물, 사람의 뜻일 더하는 접미사.

<표 12>에서 보면 ‘-거리, -개, 꾸러기, 군, -내기, -네, -둥이, -머리, -머리, -살이, -새, -아지, -지거리, -질, -쟁이, -투성이’ 등 고유어 명사 접미사로서 ‘-기, -이’ 동사 접미사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선어에 사용된 고유어 접미사는 북한문화어에서 받아들여 신어의 생산력이 아주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5) 한자어 접미사 파생어

<표 13> 한자어 접미사 파생어

한자어접미사	표준어	조선어에만 쓰이는 어휘
-가(家)	기업가, 공처가, 실업가, 무용가	과학가
-감(感)	사명감, 소외감, 거리감, 우월감, 귀속감, 압박감, 죄악감, 행복감, 진실감,	고귀감, 소녀감, 성숙감, 자비감, 친절감, 제육(六)감 <sup>23)</sup>
-공(工)	수리공, 배관공	놈민공
-구(區)	개발구	투자구, 행정구, 통상구, 경제특별구, 관광구, 관광풍경구, 유람구, 자유무역구, 합작구
-금(金)	가급금, 가불금, 선불금, 매출금, 체납금, 격차금, 계약금, 국고보조금, 보증금, 부담금, 사례금, 산재보상금, 상여금	계약상납금, 조학대부금, 특별주식배당금
-기(期)	성수기, 안전기	빈곤기
-관(館)	도서관, 시학관, 기념관	도박관
-관(官)	검찰관, 집행관, 심판관, 번역관, 지방관, 외교관	행사관
-광(狂) <sup>24)</sup>	축구광	유희광, 경극광
-권(券)	유람권, 외화태화권, 상품권	
-권(權)	선거권, 초상권	령도권, 사퇴권, 사업소유권
-농(農)		남새농, 과일농
-도(度)	지명도, 투명도, 인지도, 신선도,	친절도, 명확도, 견고도, 외자유치도
-대(隊)	순찰대	소선대, 남극고찰대
-대(臺)	관상대, 전망대	시간안내대, 주석대
-량(量)	생산량, 총우량	토공량

-력(力)	기억력, 순발력, 영향력, 작동력, 국제경쟁력	로동력
-령(令)	수배령	폭죽금지령
-률(率)	경제성장률, 보급률, 성공률, 외자리용률, 할인률, 환률	가스화률, 불량품률, 빈곤재귀률, 빈곤해탈률, 설비가동률, 우전저축률, 현금매입환률,
-망(網)	사업망, 매점망, 안전망, 관계망	
-미(美)	건강미, 인정미	심리미
-방(房)	pc방, 아기방, 빨래방, 다방, 게임방	세족방
-범(犯)	소년범	혐의범
-병(病)	공주병, 왕자병, 커피병, 월요병	
-복(服)	야회복, 위장복	공작복
-본(本)	수사본, 복사본, 원본	등록본
-비(費)	가설비, 학비, 가입비, 소송비, 주차비, 접대비	토지개발비, 년도검사비, 도로통과비
-사(師)	향해사, 회계사, 영양사, 료리사, 강사	
-상(商)	증권거래상, 편의권채상	
-서(書)	보증서, 의향서, 지원서, 검토서, 설비경력서	
-선(線)	중앙선, 순환선, 합격선	입학점수선, 일식생산선
-성(性)	공격성, 내건성, 내열성, 내한성, 밀착성, 보완성, 속보성, 폭력성, 돌발성, 호환성	경제효과성, 고효익성, 단기효과성, 사회효과성, 성숙성
-소(所)	화력발전소, 주유소	파출소, 혼인소개소
-수(手)	고수	능급수
-술(術)	성형술	가공술
-식(式)	계약식, 이동식, 자유식, 재래식	경제밀착식,련쇄식, 생태순환식, 순환식
-실(室)	대합실, 휴게실,	판공실

	진찰대기실, 공중전화실	
-생(生)	편입생, 강습생	정향지표생, 추천생, 월등생, 정원모집생
-세(稅)	개인소득세	도시건설세, 수입부가가치세, 선불세
-세(勢)	성장세, 급성장세	
-열(熱)	교육열, 과학연구열	출국열
-용(用)	1회용	
-인(人)	외계인, 우주인, 투자인, 후견인, 기업인, 지역인	세집전대인, 외국상공인, 출품인
-액(額)	거래액, 판매액,	저장액, 세금액, 외자리용액, 향진기업불변가격생산액,
-원(員)	환경미화원, 외판원, 연구원	공인간호원, 복무원, 시험감독원
-원(院)	미용원	교양원, 양로원
-자(者)	동업자, 주문자, 불법체류자, 소비자, 시청자, 용의자, 소유자, 인솔자, 마약중독자, 시각장애자, 언어장애자	공상업자, 이적신청자, 정리실업자, 로무자, 초생활수급대상자, 농업기술보급사업자,
-장(場)	경매장, 썰매장, 세차장, 경기장	레식장
-적(的)	객관적, 감정적, 계획적,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외부적, 우호적, 혁명적	로력적
-전(戰)	승자전, 예선전	강타전, 청년련맹전
-점(店)	골동점, 면세점, 대리점	런쇄점,
-족(族)	공혼족, 조선족, 덩크족, 독신족,	월광족, 하해족, 출근족, soho족, 대기족, 배낭족, 장발족
-주(主)	경영주	가옥주
-주(株)	우선주, 우량주	불량주
-증(證)	수료증, 한국체류자증,	근무증, 산아증, 결혼증, 건물소유증
-증(症)	망상증, 합병증, 협심증,	월요일공포증

	정신분렬증	
-제(劑)	첨가제, 보습제	랭각제
-제(制)	단일제, 학점제	가격명시제, 가변제, 경제책임제, 관리책임제, 기술계약책임제, 농업생산책임제, 전면도급제
-처(處)	혼인등록처	매표처, 무역대표처, 대행처
-촌(村)	문화촌, 지구촌	휴가촌, 전자촌, 체육촌, 과학기술보급촌,
-체(體)	수용체	접수체
-품(品)	면세품, 생식품, 공예품, 재고품	절도품, 특용품
-풍(風)	한류열풍	경제과열풍, 선물풍, 과장풍
-형(型)	극소형	개발형, 능력형, 대중형, 호화형, 경영위주형, 고밀도형, 경제밀착형
-호(戶)		개체경영호, 남새전문호, 돼지사양전문호, 전문호, 본터입주호, 월등호
-화(化)	개방화, 고령화, 집단화, 다극화, 사회문제화, 시장화, 활성화, 상품화	경제활성화, 국가현대화, 이색화, 청년화

‘-제(制), -권(權), -전(戰), -용(用), -열(熱), -통(通), -기(期), -풍(風), -술(術), -세(勢), -령(令)’ 등은 사회의 발전추세를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열(熱)’은 사회현상의 변함에 따라 ‘어떠한 현상이 유행하다’는 뜻을 나타

23) 직감을 가리킴.

24) 김기종(2007)에서는 개혁개방이후 한국어의 영향으로 영어 차용어 ‘팬(fan)’이 중국조선어에 들어와 ‘영화팬, 음악팬’과 같이 접미사로 쓰이고 기존 접미사 ‘-광(狂)’과 동의어적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 ‘팬’과 ‘광’은 동의어적관계에 놓이기에 운동경기나 선수, 연극, 음악 등과 배우, 가수 등을 열광적으로 즐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팬’과 ‘광’은 의미색채 분화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팬’은 ‘애호가’라는 뜻이 강조되어 쓰일수 있으나 ‘광’은 ‘미친 듯이’라는 뜻이 강조되어 존경해야할 자리에는 점점 쓰이지 않고 있다.

내고 있다.

‘-화(化), -형(型), -성(性), -적(的), -식(式)’ 등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식(式)’은 원래 일정한 전례에 따르는 격식이나 양식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지금은 원래의 뜻으로부터 추상화시켜 ‘방식’의 파생적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그 조어력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도(度), -률(率), -력(力), -선(線), -량(量), 권(圈)’ 등은 정도 혹은 한도를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도(度)’는 원래 ‘금년도’와 같이 기간을 뜻하거나 혹은 ‘농도, 습도’와 같이 물질성질의 정도를 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사물에 까지 쓰임으로서 ‘정도’의 뜻으로 결합조건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金), -액(額), -비(費), -세(稅), -주(株)’ 등은 경제에 관련되고 돈 혹은 자금을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자(者), -호(戶), -인(人), -원(員), -광(狂), -생(生), -가(家), -공(工), -대(隊), -농(農), -사(師), -주(主), -범(犯), -족(族), -상(商), -관(官), -수(手)’ 등은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족(族)’은 원래 일정한 공통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류를 나타낼 때 쓰이는 접미사로서 지금은 어떤 명사위 뒤에 붙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킨다. 원래 조어력이 약했는데 중국 개혁개방 이후 영어의 외래어 영향에 ‘-족(族)’의 조어력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신어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어에 영향받아 ‘-족(族)’의 결합조건이 확대되어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접미사 ‘-광(狂)’은 원래 ‘독서광, 축구광’ 같이 정도를 지나서 좋아함을 나타내는데 지금은 ‘무엇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여 사용빈도가 높다.

‘-구(區), -망(網), -원(院), -소(所), -실(室), -장(場), -촌(村), -처(處), -점(店), -대(臺), -관(館), -방(房)’ 등은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

구(區)는 원래 '조선족자치구'와 같이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하지만 개혁개방후 한어의 영향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구역'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촌(村)'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기관 혹은 부분에 관련된 시설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역'을 나타내기도 한다. '-방(房)'은 원래 사람이 살거나 물건을 저장하는 건축을 가리키는데 지금은 '영업소'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복(服), -품(品), -체(體), -제(濟)' 등은 물품을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권(券), -증(證), -서(書), -본(本)' 등은 유효된 증명서를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감(感), -미(美), -증(症), -병(病), -적(的)' 등은 추상적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병(病)'은 생물체의 전신 또는 일부분이 앓거나 탈이 나는 것과 같이 '질병'이라는 뜻으로 '심장병, 백혈병'과 같은 합성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어의 영향 받아 깊이 뿌리박힌 잘못이나 결점을 비유적으로 신어조어법이 널리 쓰이게 된다.

한자접미사 파생에 의해 산생된 신어들은 두 개의 한자접미사가 이중파생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ㄱ. 경제적효률성: 경제+적+효률+성

ㄴ. 생태순환식양식장: 생태+순환+식+양식+장

'경제적효률성'은 한자어접미사 '-적(的)'과 '-성(性)'이 이중파생을 이루고, '생태순환식양식장'은 한자접미사 '-식(式)'과 '-장(場)'이 이중파생을 이루었다.

<표 13>에서 보시다 싶 이 중국조선어의 어휘에서 한자어접미사가 고유어 접미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자어 접미사 표준어에 쓰이지 않고 조선어에만 쓰이는 파생접미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접미파생어와 어근

<표 14> 접미파생어와 어근

어근	접미사	어근	파생어
거시	-적(的)	결책	거시적결책
거시	-적(的)	개혁	거시적개혁
거시	-적(的)	관리	거시적관리
경제	-적(的)	담보	경제적담보
경제	-적(的)	수단	경제적수단
구도	-적(的)	의식	구도적의식
규범	-화(化)	건설	규범화건설
매연	-성(性)	오염	매연성오염
민주	-화(化)	개혁	민주화개혁
번개	-식(式)	공격	번개식공격
별집	-형(型)	전화기	별집형전화기
사회주의	-적(的)	경제	사회주의적경제
세기	-적(的)	숙망	세기적숙망
수익	-성(性)	규모	수익성규모
이동	-식(式)	가옥	이동식가옥
전략	-적(的)	조절	전략적조절
주식	-제(制)	회사	주식제회사
지속	-적(的)	발전	지속적발전

<표 14>에서 보면 ‘-성(性), -식(式), -적(的), -형(型), -화(化)’와 같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 파생어와 둘 혹은 그 이상의 한자어 명사 어근과 결합하여 구성된 신어들이 생산성적인 양상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합성과 파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신어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문화어와 한국표준어를 구분하는 특징이기도 한다. 이 중에서 ‘-적(的)’의 접미사파생어의 어휘 생산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3.2.3. 한자접두사와 한자접미사파생어

접사의 파생에 의하여 생성된 신어들 보면 한자접두사와 한자접미사 동시에 파생되는 파생법이 있다.

<표 15> 한자접두사와 한자접미사 파생어

한자접두사	어근	한자접미사	파생어
고(高)-	명확	-도(度)	고명확도
고(高)-	효익	-성(性)	고효익성
고(高)-	효과	-성(性)	고효과성
고(高)-	밀도	-형(型)	고밀도형
극(極)-	소	-형(型)	극소형
다(多)-	세기	-적(的)	다세기적
다(多)-	발	-성(性)	다발성
초(超)-	소	-형(型)	초소형
미(未)-	지급	-금(金)	미지급금
미(未)-	지급배당	-금(金)	미지급배당금
미(未)-	지급로무	-비(費)	미지급로무비
미(未)-	취업	-률(率)	미취업률
재(再)-	조합	-형(型)	재조합형
초(超)-	상규	-적(的)	초상규적
초(超)-	유희	-광(狂)	초유희광
최(最)-	적	-화(化)	최적화

<표 15>의 어휘들은 모두 한자접두사와 한자접미사에 의해 이중 파생된 경우이다. 이들의 의미비중을 살펴보면 접미사에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효과성, 고효익성, 고밀도형, 재조합형, 초상규적, 초소형, 최적화’ 등은 성질이나 상태에 비중을 두었고, ‘고명확도, 미취업률’은 정도나 한도에 비중을 두고 ‘미지급금,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로무비’등은 의미를 자금에 비중을 두고 ‘초유희광’은 사람에 대하여 비중을 두었다. 이 뿐

만 아니라 접두사와 접미사의 사용위치가 <표 11>처럼 거꾸로 된 양상도 보이기도 한다.

<표 16> 접미사와 접두사

어근	접미사	접두사	어근	파생어
현대	화	대	생산	현대화대생산
곤난	호	재	취업	곤난호재취업

이들의 의미비중은 <표 15>과 반대로 접두사에 두고 있다. 이런 신어의 생성양상은 표준어와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 3.3. 조선어 신어의 축약어

단어의 축약형은 말 그대로 단어의 형태를 간소화시킨 것이다. 축약어는 의미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형태만 변화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국영기업’은 ‘국가경영기업’과 의미차이는 없고 형태적으로만 축소되어 이루어진 축약어이다. 하지만 ‘국영기업’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때 이러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영기업’은 신어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축약법은 단어의 경제성을 보완하여 나타난 또 하나의 형태이며 경제성을 강조한 유형이라도 할 수 있다. 개혁개방 후 축약 역시 중국조선어 신어의 새로운 어휘구성방식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고 발전하며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다.

축약된 형태의 어휘를 준말이라고도 한다. 『조선말소사전』에서 정의를 살펴보면 준말은 단어나 단어결합에서 그 구성요소들 중에 일부의 말소리,

소리마디, 형태부, 단어 등이 줄어서 이루어진 단어 또는 단어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축약어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단어의 형태가 축소되어야 한다. 음절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앞 음절만 나오거나 형태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둘째, 축약형은 원래의 단어가 있어야 한다. 축약형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말에 경제성원리가 작용하면서 줄어든 형태이다. 아래 ‘가정용전기제품’을 보자.

가. 가정용전기제품(기존단어) → 가전제품(축약어)

축약형인 ‘가전제품’은 기존의 완전한 형태로 생성된 모습에서 줄어든 것이다. 그러므로 축약형의 전제는 대응하는 기존단어가 존재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축약형단어가 생성되는 것이다.

셋째, 축약형의 기존단어는 단일어 합성어까지 될 수 있다.

축약어는 크게 음운 줄임형과 자름형, 그리고 머리음절형과 꼬리음절형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7) 음운줄임형

말 그대로 음운을 줄어든 축약형이다.

<표 17> 음운 줄임형 축약어

음운줄임형 축약어	기존단어
군빵	구운빵
군고구마	구운고구마

이런 축약형은 문어체에서 보다 구어체에서 나타난다.

(8) 자름형

‘자름형’은 결합하는 각 형태에서 어느 한 요소를 자름으로써 만드는 방식이다. 어느 음절을 취하고 제하는 문제는 수의 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의미무게 중심에 따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의미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의미비중이 작은 쪽은 버리고 의미비중이 큰 쪽을 취하는 것이다. (김희영:1999) 아래에서 자름형으로 형성된 신어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8> 앞부분 자름형 축약어

앞부분절단형 축약어	기존단어
관수송	도관수송
늪창문	알루머늪문창
범생	모범생
마트	슈퍼마트
양식	서양식

<표 19> 뒷부분 자름형 축약어

뒷부분자름형 축약어	기존단어
간부직	간부직책
공립대	공립대학
계약수매곡	계약수매곡식
나이차	나이차액
등기창구	등기창구
무기물	무기물질
바닥재	바닥재료
보온재	보온재료

부심	부심판
사무직	사무직책
선전창	선전창구
선전부	선전부문
소선대	소선대원
세대차	세대차아
오염물	오염물질
유기물	유기물질
전문직	전문직업
전문대	전문대학
주심	주심판
좌담회	좌담회와
최고가	최고가격
최저가	최저가격

<표 20> 중간부분 자름형 축약어

중간부분 자름형 축약어	기존단어
가공탄	가공석탄
가공품	가공상품
국비	국카장비
국유민영	국카소유민관경영
근속년한	근속료동년한
기공식	기공와식
등본	등록본
러행사	러행화사
로력시장	로동력시장
로무계약	로동채무계약
민영기업	민관경영기업
부품	부속품
정초식	정초의식
설문지	설문조사지
세수	세금장수

세입	세금수입
화객수송	화물객수송

<표 21> 앞뒤부분 자름형 축약어

앞뒤부분자름형 축약어	기존단어
밀회	빠밀회관
정가	균정가격
관권	출판권한

상술한 표를 보면 자름형 축약어는 <표 18> 앞부분 자름형 축약어, <표 19> 뒷부분자름형 축약어, <표 20> 중간부분 절단 형 축약어, <표 21> 앞뒤부분자름형 축약어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름형 축약어를 보면 기존단어가 대부분 한자어들이다. 기본단어가 한자어 단어일 경우 자름형 축약어가 가장 생산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머리음절형

<표 22> 머리음절형 축약어

머리음절형	기존단어
가전제품	가정용전카제품
공상	공공상해
명퇴	명예퇴직
범행	범죄행위
병퇴	병균퇴직
생검	생체검사
시가	시장가격
시판	시험판매
전국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대	인민대표대회
외자	외국자금

해경	해양경찰
특혜	특별혜택

<표 22>에서 ‘가전제품’은 ‘가정용’에서의 머리음절인 ‘가’와 ‘전기’에서의 머리음절인 ‘전’ 결합되었기 때문에 머리음절형 축약어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가전’이 가정용전기’의 머리음절이고 ‘가전제품’은 ‘가전’과 ‘제품’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10) 꼬리음절형

꼬리음절은 쉽게 말해서 구성요서의 꼬리부분만 취하여 신어를 산생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꼬리음절형 축약어의 기존단어도 합성어야 한다. 비록 꼬리음절형 축약어는 생산적이지 않지만 머리음절과 대응하여 간단하게 논하겠다. 예로 ‘명품, 명표’을 들 수 있다.

<표 23> 꼬리음절형 축약어

꼬리음절형축약어	기존단어
명품	유명상품
명표	유명상표

‘명품’의 기존단어 ‘유명상품’은 쓰임이 아주 활발하고 꼬리음절형인 ‘명품’도 다른 단어와 합성하여 ‘명품가방, 명품옷’등 합성어를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보인다. ‘명표’도 기존단어 ‘유명상표’ 쓰임이 아주 활발하고 꼬리음절형인 ‘명표’와 다른 단어와 합성하여 ‘명표농산물, 명표 입쌀, 명표효과’ 등 생산성을 보인다.

### 3.4. 조선어 외래어 신어

중국의 개혁개방은 조선족과 외부민족의 언어문화가 교류가 빈번해졌다. 때문에 중국조선족의 언어개념과 의식관념이 변화하게 되어 외래문화와 외래어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신어 중에는 외래어도 적지 않는 양을 차지하게 되었다. 새 시대 젊은 층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욕구가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외래어의 사용은 일종의 유행이 되었다. 조선어의 외래어는 차용어가 제일 생산적이다. 외래어의 사용은 조선어 어휘구성을 풍부히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주고 조선어의 변화와 발전의 새로운 특징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신어는 조선어의 어휘구성에 존재하는 기존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기하고 반면에 조선어 내에서 활용할 어휘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차용의 방식을 통하여 신어가 산생된다.

#### 3.4.1. 외래어 신어의 유입방식

외래어의 경우 조선어에 유입된 것은 대부분 사물을 지시하는 명사이다. 이처럼 외래어를 차용할 때 명사가 많은 것은 명사의 경우 차용저항이 적고 외래어가 유입 될 때는 외국의 사물이나, 기술, 새로운 개념 등에 대한 어휘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차용은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어에 차용 될 때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아래에서 외래어가 조선어에 차용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1)차용어로 유입

조선어는 표음문자로서 세계 대부분 언어의 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대부분의 외래어는 조선어 어휘 체계에 인입될 때 원음을 지니고 있다.

<표 24> 차용으로 받아들인 신어

그린올림픽	green Olympic
게임	game
드라마	drama
드라이브	drive
디자이너	designer
리더	leader
리모콘	remote control
레이저프린트	lazar print
모터	motor
미니세이프	mini safe
박스	box
버튼	burton
보너스	bonus
볼펜	ball pen
부츠	boots
서비스	service
샤프	sharp
스낵바	snack bar
쇼핑몰	shopping Moll
쇼핑센터	shopping center
스트레스	stress
안테나	antenna
오디오북	audio book
인터넷	Internet
인터넷뱅킹	Internet banking
인터넷 쇼핑	Internet shopping
에어컨	air conditioner
와인	wine
와이프	wife
웨딩	wedding
위챗플랫폼	Wechat platform
콘택트렌즈	contact lens

클럽	club
커플	couple
케이크	cake
캠퍼스	campus
퀴즈	quiz
테스트	test
프로포즈	propose
프린트미디어	print media
핑크	pink
핸드폰	mobile phone

<표 24>에서 음역된 신어들은 새로운 사물과 현상에 대해 조선어 어휘에 적당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조선어의 표음문자 장점으로 원음 그대로 외래어를 차용되고 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어휘들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쉽고 무리가 없으며 지금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합리하다.

그리고 차용에 의한 신어들 가운데서 기존 조선어와 같이 쓰이는 중첩되는 양상도 보인다.

<표 25> 중첩사용된 외래어

기존어	외래어
공기조절기(空氣調節機)	에어컨
공중선(空中線)	안테나
교정(校庭)	캠퍼스
구락부(俱樂部)	클럽
단설기	케이크
등색(橙色)	주황색
련속극(連續劇)	드라마
록색(綠色)	그린
복무(服務)	서비스
분홍(粉紅)	핑크

빨간	레드
살까기	다이어트
상자(箱子)	박스
설계사(設計師)	디자이너
안해	와이프
연인(戀人)	커플
유희(遊戱)	게임
음향(音響)	스피커
원주필(圓珠筆)	볼펜
이동전화(移動電話)	핸드폰
자동연필(自動鉛筆)	샤프
장금(獎金)	보너스
장화(長靴)	부츠
전기단추(電氣단추)	버튼
전동기(電動機)	모터
접촉안경(接觸眼鏡)	콘택트렌즈
정신압력(精神壓力)	스트레스
지도자(指導者)	리더

<표 25>에서 새로 생긴 외래어들은 조선어에 유입되어 한자어와 ‘단설기, 살까기, 안해’ 등 같은 북한문화어 같은 의미로 쓰여 중첩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첩된 표현은 조선어 어휘를 다양화하게 하고 외래어는 점점 기준에 존재하는 어휘들을 대체하고 있다. 반대로 이런 현상은 조선어와 외국어의 공존속에서 어휘간 충돌이 일어나고 조선어를 약화시키고 조선어의 순수성을 잃게 된다.

(12) 축약형태로 유입

<표 26> 축약형태로 유입된 신어

AIDS	에이즈 [asymmetrical digital subscriber line의 축약어]
API	공기오염지수 [air pollution index의 축약어]
B超	B형초음파주사
BP기	호출기
CEO	수석집행관 [chief executive officer의 축약어]
CD-ROM	디스크를 읽을 수 있다 [compact disc read-only memory의 축약어]
CNO	수석담판관 [chief negotiating officer의 축약어]
CMO	수석시장관 [chief market officer의 축약어]
CPA	등기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의 축약어]
CPU	중앙처리기 [central processing unit의 축약어]
DNA	디옥시리보핵산 [deoxyribonucleic acid의 축약어]
EMS	우편행정을 빠르게 운송해준다 [express mail service의 축약어]
EQ	개인적관계를 통하여 상담하다 [emotional quotient의 축약어]
e시대	전자시대 정보시대 네트워크시대 [electronic의 축약어]
Fax	팩시밀리시스템 [facsimile의 축약어]
GDP	국내생산총액 [gross domestic product의 축약어]
GIS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의 축약어]
GMDSS	지구해상조난 및 안전시스템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의 축약어]
GNP	국민생산총액 [gross national product의 축약어]
HA	가정자동화 [home automation의 축약어]
HSK	한어실력고사
IC카드	집적회로카드 [integrated circuit의 축약어]
ICP	인터넷정보제공자 [Internet content provider의 축약어]
ICQ	네트워크무선호출기 [I seek you의 축약어]
IDC	인터넷데이터센터 [internet data centre의 축약어]
internet	인터넷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축약어]
IP주소	인터넷상의 국제합의주소 [Internet Protocol의 축약어]
IP	인터넷상의 국제합의전화 [Internet Protocol의 축약어]
IP카드	전화카드 [Internet Protocol의 축약어]
IQ	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의 축약어]
TOPIK	한국어능력시험

<표 26>에서보면 조선어 신어의 외래어는 전문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입방식에서 머리 음절 형으로 된 축약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알파벳을 하나하나 읽는 방식이나 ‘TOPIK’처럼 단어처럼 발음하는 방법이 있다. 축약형태 된 외래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전문용어들 많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조선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문에서 보면 이러한 축약 신조어 옆에는 한어(漢語)로 해석되어있는 경향도 보인다.

3.3. 장에서 에서 언급하듯이 축약형은 경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어 산생에서 아주 생산적이다. 특히 외래어 차용에 있어서 길고 복잡한 단어 표현을 단단하게 해주고 기존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 쉽게 기억 할 수 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명칭을 위하여 차용한 신어들을 살펴보면 기존언어에 대한 발음 과 의미상의 변화가 없고 그대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 IV. 중국조선어의 신어형태 형성된 요인

중국조선어는 약 100여 년 걸쳐 중국사회환경속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한국어와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음운, 형태, 통사보다 어휘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아래에서 특히 변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 조선어의 어휘는 외부의 영향으로 변화를 갖게 된다.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조선어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중국조선어는 조선반도의 언어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둘째, 중국조선어는 조선반도방언체계의 한 방언이다.

셋째, 중국조선어휘는 한국어와 문화어와 같이 고유어체계와 한자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북한문화어와 한국표준어와 달리 중국조선어는 한어(漢語)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현대한어(現代漢語)의 어휘를 받아들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는 직접 음역한 어휘가 많기 때문에 대량의 한자어가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고유어와 비교했을 때 조선어 한자어의 어휘 변화가 더 크다.

여섯째, 전문용어 이외에 조선어에는 외래어가 적다.

일곱째, 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어 경쟁에서 고유어는 점차 소실되어 간다. 예: 논-수전(水田), 남편-애인(愛人) 혹은 대상(對象), 일터-강위(崗位), 터-기지(基地), 쉬다-휴식(休息), 어렵다-곤난(困難)하다 등이 있다. 25)

---

25) 張曉曼. 尙安新(2014).「韓國語, 朝鮮語, 中國朝鮮語漢字使用現況研究」,『동양한학회』2.pp.186

## 4.1. 사회적 요인

언어는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언어는 사회적 요소를 떠날 수 없다.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어 어휘의 변화도 중국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중국 조선어의 어휘 변화를 일으킨 사회적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에는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영향이 크고 또한 조선어사층의 변화, 조선어가 사회에서의 지위변화, 언어규범의 변동, 이중언어교육등이 있다.

### 4.1.1.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변화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조선어에는 사회제도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어휘들 많이 출현되고 이런 어휘들도 날따라 변화하게 된다. 사회주의 의식형태와 체계는 대량의 조선어어휘를 산생시켰다. 또한 빈번하게 변화하는 사회변혁도 잦은 어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컨대 중국조선족의 항일해방투쟁은 여러 번 겪어서 의병투쟁에서 독립군투쟁으로, 독립군투쟁에서 항일련군투쟁으로 변화되면서 조직명칭과 군부단체명칭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 해방 후의 농촌경제체계는 호조조(互助組), 초급농업합작사, 고급농업합작사, 인민공사, 농호별생산량도급생산제 등 몇단계의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휘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金順女:2010)

#### 4.1.2. 조선어 사용자층의 변화

중국의 조선족 인구수는 약 200만 명으로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약 80만 명이 있다. 이는 전체 조선족 인구의 약 41.6%된다. 개혁개방 전 조선족들은 한 개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최근에 들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도시로 이동하고 또한 조선족 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조선족 학교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어 보존과 발전에 불리하다.

조선족 중에서 조선어를 일상에서 주요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1세나 2세의 비율은 극히 감소되고 있다. 조선어와 한어 이중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3세와 4세가 늘어나면서 조선어의 사용자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4.1.3. 이중언어 교육

중국의 조선족 학교에서는 조선어와 한어의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족학교의 조선어 및 한어의 주간 수업시간 배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초등학교와 중학교<sup>26)</sup>에서 주당 한국어와 한어에 배정된 강의시간비교. (마금선:2009)

년도	교육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2003	한국어	5	5	5	4	4	4	3	3	3
	한어	6	6	6	6	6	6	5	5	5
2006	한국어	7	7	6	5	5	5	4	4	4
	한어	7	7	5	5	5	5	5	5	5

<표 27>에서 연변지역의 조선족 초등학교에서는 한어수업은 1학년부터 개설되어있고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한어의 수업시간은 조선어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조선어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어의 언어간섭을 받게 되고 학생들도 점차 한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중교육도 받지 못하고 유치원부터 한어교육을 받고 조선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4.2. 심리적 요인

어휘 변화를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조선어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민족의식의 약화, 새로움을 추구, 경제성의 추구를 들 수 있다.

26)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이고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중등학교이다.

#### 4.2.1. 민족의식의 약화

중국 조선족은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엄격하게 구분한다. 조선족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나 자신들을 북한인이나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민족의식과 언어의식이 강한 조선족들의 일상생활언어에서 북한의 문화어와 한국의 표준어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민족 언어를 지키고자하는 경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민족사이의 공간적, 심리적 거리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혹은 번역에서의 번거로움을 피면하기 위하여 한어(漢語)를 그대로 쓰는 경향이 많다. 문장표현에서 한어(漢語)는 조선어보다 짧고, 함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어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것은 조선어와 한자어의 유의어를 만드는 원인이기도 한다.

또한 대학입학문제, 취업문제, 업무의 필요성 등 현실적 문제들로 하여 중국어 잘해야 하는 것은 필수 조건으로 되고 이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보내는 경향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한족학교에 교육받고 있는 자녀들도 이중언어를 포기하고 중국어만을 사용하고 조선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상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4.2.2. 새로움을 추구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현상, 새로운 사물의 출현은 사람들이 새로움에 대한 추구하고 변화의 욕구를 자극하게 한다. 원래부터 있던 사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 표현력이 더욱 풍부하게하고 있다.

중국조선족들은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외의 새로운 사물, 새로운 관념등과 접촉할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1989년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에서는 대외로 인력수출을 하기 시작하였다. 연변

자치주의 해외파견 노무시장은 스페인을 비롯하여 점차 러시아, 한국, 리비아, 일본, 싱가포르, 북한, 미국, 사이판 등 20여개 국가로 확장되고 있으며, 노무 업종에 있어서도 원양어선 업종으로부터 점차 건축, 기계가공, 주물, 운수, 복장가공, 해원, 농업종식, 삼림채 등 40여 가지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옥희:2006:96)

조선족들은 국외에서 선진적인 생활용품과 가치관, 생활방식 그리고 언어까지 받아들여 오게 되었다. ‘햄버거, 핫도그, 매니저, 하이힐, 청바지, 커피숍, 토너, 로션’ 등 어휘들은 역시 외국과의 접촉으로 받아들인 신어들이다. 이렇게 새로운 사물의 출현으로 새로운 신어가 출현하는 반면에 예전에 사용하던 물건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면서 그에 상응하는 어휘들이 소멸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BB기, 녹음테이프’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과 기술을 인입하고 선진적인 경영관리방법을 인입하여 경제발전을 추진시키고 새로운 사물과 관념의 인입과 함께 새로운 어휘들도 따라 들어오게 되었다.

조선족들의 새로운 사물에 대한 태도와 적응능력은 변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변화발전하고 있는 언어체계에 도 빨리 적응하고 새로 나타난 신어들을 받아들여 어휘구성을 보충하고 있다.

#### 4.2.3. 경제성을 추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의 발전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동화 혹은 기계화로 변화시켰고 또한 사람들도 점차 그 편리함을 추구하게 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에 익숙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도 경제성과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경제성을 추구하는 민족심리가 언어영역에서 축약어 대량으로 출현되었다. 이를테면 ‘주심←주심관, 부심←부심관, 명퇴←명예퇴직, 명표←유명상표’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라틴문자를 축약한 형태인 ‘TV’, ‘CT’, ‘DVD’, ‘WTO’ 등이 있는데 ‘텔레비죤’보다는 ‘TV’가, ‘전자계산기단층촬영’보다는 ‘CT’, ‘레이저디스크’보다는 ‘DVD’, ‘세계무역기구’보다는 ‘WTO’가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러한 신어들은 정보화 시대에서 통신수단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4.3. 언어접촉 요인

다른 언어들간의 장기적인 접촉으로 언어 사이에 서로 일정한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중국조선어는 외적으로 한어를 비롯한 여러민족, 다른나라의 영향을 받는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조선족과 외부세계와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새로운 어휘가 대량으로 산생되었다. 그 중에 특히 한족과 한국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하여 한어 및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어휘들이 생겼다.

#### 4.3.1. 북한문화어의 영향

중국조선어에는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되는 어휘이외에 일반어휘는 북한문화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면 ‘기본고리, 근로자, 통신교육, 밥곽, 자기비판’ 등이 있다. 그리고 방언을 표준어로 인상시킬 경우에도 북한을 많이 따랐다. ‘눈추리→눈초리, 멧쟁이→멧쟁이, 곰팡이→곰팽이, 구덩이→구멍이, 꼬랑이→꼬랭이’ 등이 있다.

20세기 80년대 까지 중국조선어는 중국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반영하는 어휘이외에 현실사회와 문화방면을 표현하는 일반어휘는 문화어를 많이 반영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 한국과 중국 수교된 이후로는 조선어 사용자는 북한 문화어보다 한국표준어를 선호했다. (孫正鎬:2011)

#### 4.3.2. 한어의 영향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하고 조선족들은 중국 사회에 정착하여 ‘중국 조선족’ 형성되었다. 그리고 민족 자치구역정책에 의하여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형성되었으며 1958년 장백조선족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이 성립되어 조선족들 고유의 언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고 한(漢)족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한족(漢族)이 다수를 차지하고 통용어가 한어(漢語)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는 한족들과 불가피하게 많이 접촉하게 되어있으며 한어(漢語)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중언어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어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와 구조는 중국어를 수용하는데 아주 유리하여 한어를 원음대로 차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자어가 대량으로 산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어 고유어의 형성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에서 구어체와 문어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자어의 파생접두사와 접미사가 고유어와 결합했을 때 조선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어에서 생긴 한자어는 중국조선족사회의 교제의 공백을 피면하게 되었다. 또한 한어의 사용은 조선어처럼 높임말이나 낮춤말이나 등 언어선택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번역의 번거로움도 피면할 수 있다. 반면에 조선족들은 한족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족 사이 대화에서 조선

어와 한어 혼용하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조선어가 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

### 4.3.3. 한국표준어의 영향

1992년 중국과 한국 정식 수교 한 후로부터 양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영역에서 교류가 빈번하게 되면서 한국어는 조선어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1945년 광복 후 자체의 실정에 맞춰 언어를 발전시키는 한편 영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영어교육열풍, 영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특수한 친밀감으로 하여 영어외래어가 한국에서 많이 산생되었다. 따라서 조선어와 한국어는 같은 기반을 두고 있지만 반 세기 동안 서로 다른 사회 환경에서 발전해오면서 이질성을 보이게 되었다. 음운과 형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어휘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교가 이루어진 후부터는 한국유학진출, 인력수출, 한국기업이 중국으로의 진출 등의 사회적 변화는 , ‘한류’문화를 통하여 가속화 되고 있다. 중국조선족사회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하게 되고 한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조선어의 어휘 조어형태도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 외 조선어에 대한 한국어의 영향으로 문화현상으로서의 ‘한류(韓流)’ 열풍의 영향이 크다. 한류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음악 등의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선풍적인 기와 함께 이에 의해 한국어, 패션, 음식,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 뿐만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현상을 포괄하는 문화현상을 말한다. 이제 한류현상을 한류라는 고유명사로 인식될

만큼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이후 조선어는 한국에로의 유학생진출과 인력수출,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등 원인으로 한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조선어의 어휘구성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어와 한국어의 외래어가 중국조선어에 주는 영향은 조선어의 변화 발전에 나타난 새로운 특징의 하나로서 어휘의 변화가 국제화의 추세를 보여주었다.



## V. 결 론

언어는 교류의 수단이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 중국조선어와 한국표준어의 뿌리는 같은 것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 환경과 사회체제의 차이에 의해 지금 많은 차이가 있다. 조선어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중국어에서 차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어의 조어양상에 대하여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본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성, 선행연구 및 연구대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국 조선어판 신문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잡지로는 『연변문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중국조선어 어휘자료를 수집정리하면서 조선어의 조어양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선어의 의미변화와 어종별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 신어에 대한 한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규범화에 관한 연구 등 세 개 부분으로 검토하였다.

제2장은 조선족 사회의 형성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조선어는 중국 건국 전, 건국 후 그리고 중국과 한국 수교 된 후 세 가지 특성을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조선어는 인구유동, 조선족 인구의 급감, 민족교육의 갈등 등 환경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신어의 정의를 간단히 다루고 신어의 생성유형을 합성어, 파생어, 축약어 외래어 등 네 개 부분으로 다루었다.

조선어 신어의 합성어에서 합성명사를 품사별로 명사와 명사의 결합, 동사와 명사의 결합, 형용사와 명사의 결합, 부사와 명사의 결합 등 다섯 개

부분으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명사와 명사의 결합과정은 가장 단순한 산출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자어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 가장 생산적이고 한자어들이 결합하여 정치경제와 의식구조에 관련된 합성어가 생성되어 언어생활에서 새로운 사물이나 명칭, 혹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기에 유용하다.

조선어 신어의 파생어에서는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의 설정기준을 다루고 신어생성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유어 접두사는 ‘강-’, ‘군-’, ‘개-’, ‘나-’, ‘날-’, ‘덧-’, ‘맡-’, ‘막-’, ‘맞-’, ‘민-’, ‘맨-’, ‘숫-’, ‘쇠-’, ‘외-’, ‘똥-’, ‘한-’, ‘헛-’, ‘홀-’, ‘홀-’, ‘헛-’등 살펴보면 조선어의 고유어 접두사는 북한의 문화어와 한국의 표준어의 언어기반이 같기 때문에 어근과 결합되어 생성된 파생어는 북한의 어휘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이고 있다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문화어를 받아들인 수량은 표준어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어 접두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8> 한자어 접두사 분류

정도를 나타내는 접두사	소(小)-, 대(大)-, 로(老)-, 재(再)-, 고(高)-, 초(超)-, 급(急)-, 간이(簡易)-, 최(最)-, 다(多)-
범위를 나타내는 접두사	총(總)-
부정이나 혹은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사	미(未)-, 무(無)-, 비(非)-, 반(反)-
순위를 나타내는 접두사	주(主)-, 부(副)-
양태를 나타내는 접두사	신(新)-, 명(名)-, 령(冷)-

그리고 ‘고(高)-’와 ‘신(新)-’, ‘최(最)-’와 ‘신(新)-’, ‘최(最)-’와 ‘고(高)-’ 는 두 개의 한자 접두사가 같이 쓰이며 이중 접두파생을 이루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고(高)-, 다(多)-’등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접두사파생어와 ‘무(無)-, 미(未)-, 반(反)-, 비(非)-’와 같이 부정이나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사파생어가 두 개의 한자 명사어근과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런 양상은 고유어 접두사에서 보이지 않고 한자어 접두사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한자 접두사가 신어를 많이 산출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어 접미사에서 보면 ‘-거리, -개, 꾸러기, 군, -내기, -네, -둥이, -머리, -머리, -살이, -새, -아지, -지거리, -질, -쟁이, -투성이’ 등 고유어 명사접미사로서 ‘-기, -이’ 동사 접미사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어에 사용된 고유어 접미사는 북한문화어에서 받아들여 신어의 생산력이 아주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어 접미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9> 한자어 접미사 분류

사회의 발전추세를 나타내는 접미사	-기(期), -권(權), -령(令), -술(術), -세(勢), -열(熱), -용(用), -진(戰), -제(制), -통(通), -풍(風)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	-성(性), -식(式), -적(的), -형(型), -화(化)
정도 혹은 한도를 나타내는 접미사	-권(圈), -도(度), -량(量), -력(力), -률(率), -선(線)
돈 혹은 자금을 나타내는 접미사	-금(金), -비(費), -세(稅), -액(額), -주(株)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가(家), -공(工), -관(官), -광(狂), -농(農), -대(隊), -범(犯), -사(師), -상(商), -수(手), -생(生), -인(人), -원(員), -자(者), -족(族), -주(主), -호(戶)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	-구(區), -관(館), -대(臺), -망(網), -방(房), -소(所), -실(室), -원(院), -장(場), -점(店), -처(處), -촌(村)
물품을 나타내는 접미사	-복(服), -제(濟), -체(體), -품(品)
유효 된 증명서를 나타내는 접미사	-권(券), -서(書), -본(本) -증(證)
추상적임을 나타내는 접미사	-감(感), -미(美), -병(病), -증(症)

한자접미사 파생에 의해 산생된 신어들은 두 개의 한자접미사가 이중과생을 이루는 양상도 보이지만 생성된 신어는 많지 않다.

중국조선어의 어휘에서 한자어접미사가 고유어 접미사보다 많고 신어의 생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자어 접미사 표준어에 쓰이지 않고 조선어에만 쓰이는 파생접미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접미사 ‘-성(性), -식(式), -적(的), -형(型), -화(化)’ 와 같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와 둘 혹은 그 이상의 한자어 명사 어근과 결합하여 구성된 신어들이 생산성적인 양상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합성과 파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신어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문화어와 한국표준어를 구분하는 특징이기도 한다. 이 중에서 ‘-적(的)’의 접미사 파생어의 신어의 생산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자어 접두사와 접미사의 이중 파생 신어 조어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신어 생산력이 높다. 원래의 뜻과 다르게 파생의 뜻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고 어휘를 풍부히 할 수 있고 의미비중을 살펴보면 접미사에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접미사와 접두사 결합하여 이중과생을 이루는 경우에는 의미비중은 접두사에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축약어는 크게 음운 줄임형과 자름형, 그리고 머리음절형과 꼬리음절형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음운 줄임형은 축약형은 문어체에서 보다 구어체에서 나타난다. 자름형은 앞부분 자름형 축약어, 뒷부분 자름형 축약어, 중간부분 절단형 축약어, 앞뒤부분자름형 축약어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름형 축약어를 보면 기존단어가 대부분 한자어들이다. 기본단어가 한자어단어일 경우 자름형 축약어가 가장 생산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음절형 축약어와 꼬리음절형 축약어의 기존단어도 합성어야 한다. 비록 꼬리음절형 축약어는 생산적이지 않지만 머리음절과 대응하여 간단하게 논하였다.

외래어가 조선어에 유입된 것은 대부분 사물을 지시하는 명사이다. 이처럼 외래어를 차용할 때 명사가 많은 것은 명사의 차용저항이 적고 외래어가 유입 될 때는 외국의 사물이나, 기술, 새로운 개념에 대한 어휘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차용은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어에 차용 될 때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낸다. 조선어는 표음문자로서 세계 대부분 언어의 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대부분의 외래어는 조선어 어휘체계에 유입될 때 원음의 발음을 유지하면서 조선어 형태를 옮겨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어휘들은 어느 정도 언중들에게 받아들이기 쉽고 무리가 없으며 지금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하다. 그리고 차용에 의한 신어들 가운데서 기존 조선어와 같이 쓰이는 중첩되는 양상도 보인다. 새로 생긴 외래어들은 조선어에 유입되어 한자어와 문화어 같은 의미로 쓰여 중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첩된 단어들은 조선어 어휘를 다양화하게 하고 외래어는 점점 기존에 존재하는 어휘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조선어와 외국어 어휘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조선어를 약화시키고 조선어의 순수성을 잃게 된다.

또한 조선어 신어의 외래어는 전문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입방식에서 머리 음절 형으로 된 축약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알파벳을 하나하나 읽는 방식이나 단어처럼 발음하는 방법이 있다. 현대 조선어의 이러한 외래어 전문용어들은 축약방식으로 유입되는 것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축약형은 경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어산생에서 아주 생산적이다. 특히 외래어 차용에 있어서 길고 복잡한 표현을 간단하게 해주고 기존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 쉽게 기억 할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4장은 중국조선어의 특징을 대하여 살펴보고 조선어 신어형태 형성하게 된 요인을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언어적요인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변화와 조선어 사용층의 변화, 이중언어 교육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변화에서 보면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조선어에는 사회제도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어휘들 많이 출현되고 이런 어휘들도 날따라 변화하게 된다. 사회주의 의식형태와 체계는 대량의 조선어어휘를 산생시켰다. 또한 빈번하게 변화하는 사회변혁도 잦은 어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金順女:2010)

조선어 사용층의 변화에서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최근에 들어서 조선족 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도시로 이동하고 조선족 학교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하여 조선어를 일상에서 주요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1세와 2세의 비율이 감소되고 조선어와 한어 이중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3세와 4세가 늘어나면서 조선어의 사용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조선어 보존과 발전에 불리하다.

이중언어교육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조선족 학교에서는 조선어와 한어의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한어의 수업시간은 조선어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조선어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어의 언어간섭을 받게 되고 학생들도 점차 한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중교육도 받지 못하고 유치원부터 한어

교육을 받고 조선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젊은 층 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민족의식의 약화, 새로움을 추구, 경제성을 추구 세 가지 있다.

중국 조선족은 사회생활에서 민족사이의 공간적, 심리적 거리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한어(漢語)를 그대로 쓰는 경향이 많다. 또한 대학입학문제, 취업문제, 업무의 필요성 등 현실적 문제들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보내는 경향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중언어를 포기하고 중국어만을 사용하고 조선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상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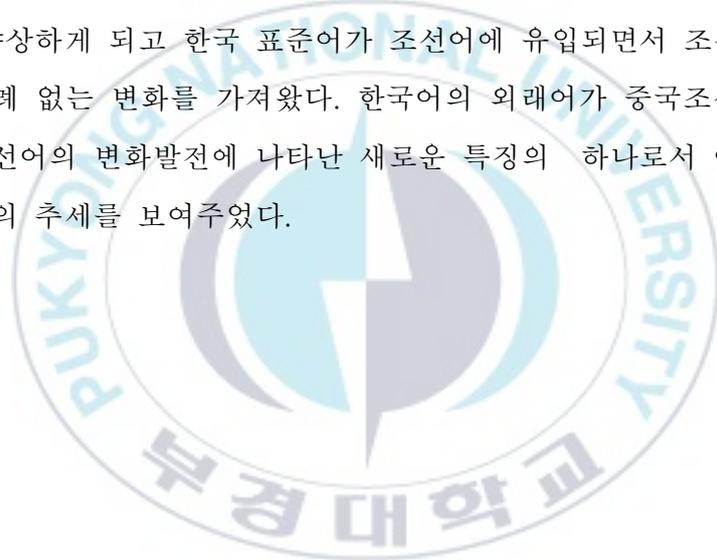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현상, 새로운 사물의 출현은 사람들이 새로움에 대한 추구하고 변화의 욕구를 자극하게 되어 사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 표현력이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동화 혹은 기계화로 변화시켰고 또한 사람들도 점차 그 편리함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도 경제성과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축약된 신어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런 신어들은 대부분 외래어인 경우가 많다.

언어적 요인으로는 북한문화어와 중국한어, 한국표준어 세 개 부분으로 다루었다. 조선어와 북한문화어, 한국표준어는 같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개혁개방 전 조선어는 자체의 규범이나 원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규범을 따라왔다. 조선족의 자치구역이 형성함에 따라 조선족들 고유의 언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고 한(漢)족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중국 통용어가 한어(漢語)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는 한족들과 불가피하게 많이 접촉하게 되어있으며 한어(漢語)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중언어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자어 단어가 대량

으로 생성되고 고유어의 조어력을 약화시켜 고유어의 발전에 불리하다. 반대로 한자어의 유입은 조선어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어에서 생긴 한자어는 중국조선족사회의 교제(交際)의 공백을 피면하게 되었다.

한국표준어 영향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 정식 수교 한 후로부터 양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영역에서 교류가 빈번하게 되면서 한국어는 조선어에 대하여 압도적이었다. 한국유학진출, 인력수출, 한국기업이 중국으로의 진출, ‘한류’문화를 통하여 중국조선족사회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하게 되고 한국 표준어가 조선어에 유입되면서 조선어의 어휘 형태도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어의 외래어가 중국조선어에 주는 영향은 조선어의 변화발전에 나타난 새로운 특징의 하나로서 어휘의 변화가 국제화의 추세를 보여주었다.



## 참고 문헌

### 【학술지논문】

- 강보유(1990), 「조선어에 대한 한어의 의미적 침투에 대하여」, 『二重言語學會誌』 7, PP.340-348
- 강용택(2013), 「중국조선어의 어휘적 특성 형성배경에 대하여」, 『재중한인 디아스포라 연구 국제학술대회』
- 김기중(2002), 「개혁개방후 직접 옮김법에 의한 조선어단어의 뜻 변화」, 『중국조선어문』. 제4호. PP4-8
- 김기중(2007), 「개혁개방후 중국조선어에서의 조어법상 접사법의 발전과 그 특성」. 『중국조선어문』 1. PP.4-9
- 김덕모(1990), 「조선말사용에 나타나고 있는 한어의 영향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지』 제7기. PP349-361
- 김동소 외(1994), 「중국 조선족 언어 연구」, 『韓國傳統文化研究』, 제9집, PP.156-483.
- 김미영(2010), 「신조어 생성과 보급에 대한 사회·심리 언어학적 분석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근(1997), 「95년 신어의 형태적 구성」, 『한국어문연구』, 제10집, PP5-36.
- 김영희(2002), 「족(族)계렬 신어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3호, PP23-27.
- 남기심(1983), 「신어의 산생과 사멸」,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남일(2001), 「개혁개방후 중국조선어규범어 사용실태」, 『중국조선어문』, 제6호, PP23-29.
- 렘광호(1989), 「연변의 이중언어현상특점」, 『중국조선어문』, PP.6-8.

- 류적(2012), 「중조 동형어휘 의미차이 원인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5, PP.52-59.
- 리명심(2003), 「중국조선어에 대한 외래어의 충격과 규범화작업」, 『중국조선어문』 ,6호 PP16-22.
- 리억철(1990), 「한어로부터 새 단어를 받아들이는 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 제2호, PP52-55.
- 마금선(2009), 「연변에서의 이중언어 사용실태와 한국어 교육」, 『세계한국어문학』 , PP.57-90.
- 묘춘매(1997), 「중국에서의 조선어 교육」, 『이중언어학회지』 , 제14호. PP.49-72.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국어학회, 태학사.
- 민홍(1993), 「‘인기화제로부터 본 연길현상’에서 본 우리말 어휘의 변화발달」, 『중국조선어문』 ,제2호, PP34-36.
- 박금해(2004),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교육과 문화」, 『人文科學論叢』 , 제14집, PP.97-112.
- 박윤조(2000), 「在中朝鮮族의二重言語現象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섭(2005), 「중국 예뵈 조선어 연구」, 『한국어 의미학』 16. PP205-230.
- 심현숙(2010), 「조선어 합성어의 구조적 유형에 대한 연구」, 7권, PP375-392.
- 심희섭(1986), 「새 중국에서 생긴 조선어 새 단어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5호, PP59-67.
- 요외(2006), 「한국어와 중국조선어의 어휘비교연구」, 『甘肅農業』 , 제1

기.PP.189

- 유춘희(2001), 「중국에서의 조선어어휘 사용실태 분석」, 『중국조선어문』, 제 5호, PP12-16.
- 유춘희(2002), 「세 나라 조선어 어휘사용 대비분석」, 『중국조선어문』, 제1호, PP8-12.
- 이승명(2001), 「신어의 해석적 연구」, 『이중언어학회』, 19권, PP351-364.
- 이득춘(1994), 「중국의 한중 이중언어 사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이중언어학』, 제11권 1호, PP.59-70.
- 이현정(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2호 제7권, PP.1-15
- 임지룡(1997), 「새 낱말 창조의 인지적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9권, PP201-234.
- 전병선(1999), 「中國朝鮮語의特性」, 『흑룡강민족총간』, 제4기.민족언어.
- 조암(2014). 「조선어 한자접두파생어의 사회언어학적고찰」, 『중국조선어문』 제6호.PP24-29
- 최명식(0992), 「연변 조선어 입말에서의 한어성분의 급격한 증대에 대한 고찰」, 『二重言語學會誌』 9,PP.208-216
- 최윤갑(1990),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변화」, 『二重言語學會誌』
- 최윤갑(1991), 「中國朝鮮語에서의 漢語借用語問題」, 『새국어생활』, 제1권, 제4호.
- 황기우(2004), 「중국조선족 민족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PP.769-792.
- 金順女(2010). 「中國朝鮮語詞彙變化的因素分析」, 『延邊大學學報』, 제43권,
- 申昇容(2006). 「東北三省 朝鮮族 現況과 語言變化 樣相 및 朝鮮語文 教

育」, 『동아인문학』 10, 2006.12.PP.235-263.제6기.PP80-81

張曉曼· 尙安新(2014). 「韓國語, 朝鮮語, 中國朝鮮語漢字使用現況研究」, 『동양한문학회』 2, pp.186

朴美玉(2014), 「延邊朝鮮語詞彙變異研究」, 『雲南師範大學學報』, 제4기 pp11-21

### 【학위논문】

김순녀(1999),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의 어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김정은(1995), 「현대 국어의 단어형성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해영(2015), 「중국 연변 조선족의 언어 사용과 태도 연구」,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김희영(1999), 「현대 국어의 신어 형성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영석(2001), 「신조어 조어법 연구-명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련화(2001), 「중국조선어에서의 외래어와 한국어에서의 외래어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홍(2016), 「중국 조문판 신문의 조선어와 한국어의 대조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옥희(2006), 「중국 연변 조선족경제의 인력수출주도 성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영자(2013), 「한국어와 중국 조선어의 동질화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장수(2002), 「國語 新造語의 特性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白玉蘭(2010), 「韓國, 朝鮮, 中國朝鮮語言語規範比較及統一方案研究」, 연  
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孫正鎬(2011), 「중국조선어와 한국표준어의 어휘차이연구」, 중앙민족대학  
석사청구논문.

### 【사전류】

- 「조선말소사전」 (2005),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現代漢語詞典」 (2012), 商務印書館.

### 【인터넷 자료】

- 연변일보: <http://www.iybrb.com/>
- 흑룡강신문: <http://www.hljxinwen.cn/>



## 국문초록

언어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신어의 생성은 필연적인 것이다. 특히 과학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공유는 신어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신어의 생성 방식의 다양화를 초래하였다. 신어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신어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와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람의 인지와 사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조선어판(中國朝鮮語版) 신문과 잡지에서 출현된 신어를 정리하여 이를 고찰하고 신어가 생성된 양상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밝혔고 지금까지 조선어 신어에 대한 선행연구를 크게 의미변화와 어종별 사용양상에 대한연구, 신어에 대한 한어의 영향에 관한연구, 규범화에 관한 연구 등 세 개 부분으로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조선족 언어의 형성 그리고 언어사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조선어 신어의 산생을 조선어 신어의 합성어, 조선어 신어의 파생어, 조선어 신어의 축약어와 조선어 신어의 외래어 등 네 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조선어 신어에서 합성어 신어와 파생어 신어는 전체 신어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어의 합성어에서 합성명사를 품사별로 명사와 명사의 결합, 동사와 명사의 결합, 형용사와 명사의 결합, 부사와 명사의 결합 등 다섯 개 부분으로 살펴보고 명사와 명사의 결합은 가장 단순하고 생

산적인 신어 산출방식임을 알 수 있다.

조선어 신어 파생어에서는 한자접미파생어의 수량은 한자접두파생어 보다 많다. 이는 한자접미 파생어에서 생산력이 높은 접미사가 많기 때문이다. 한자접미사와 둘 혹은 그 이상의 한자어 명사 어근과 결합하여 구성된 신조어들이 생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합성과 파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신어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문화어와 한국표준어를 구분하는 특징이기도 한다.

파생어에서 한자접두사와 접미사의 이중파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신어의 생산력이 많아지고 의미비중은 접미사에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한자접미사와 한자접두사 결합하여 이중파생을 이루는 경우에는 의미비중은 접두사에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어 신어의 축약어는 크게 음운 줄임형과 자름형, 그리고 머리음절형과 꼬리음절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음운 줄임형 신조어는 문어체에서 보다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어 신어 형성에서 외국어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차용으로 받아들인 신조어와 축약형태로 유입된 신어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차용에 의한 신어에서 기존 조선어와 같이 쓰이는 중첩되는 양상도 보인다. 또한 조선어 신어의 외래어는 전문용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입방식에서 머리음절형으로 된 축약형태가 많다. 이런 축약형태는 경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어에서 아주 생산적임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조선어 어휘구성에 많은 신어들의 생성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중국 개혁개방이라는 특수한 사회적요인, 심리적요인, 언어적요인 등 세 가지 방면으로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

총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조선어 신어의 생성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

는데 기존어가 어떤 방식에 의해 신어로 생성되었는지와 외래어가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 중국조선어 어휘체계에 유입되었는지에 대해 밝혀보았다. 이것은 개혁개방 후 중국조선어의 어휘적 특성과 어휘체계를 재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중국조선어 신어 생성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중국조선어와 북한문화어, 한국표준어는 같은 민족 언어로서 역사, 언어환경 등 원인으로 각자의 특색을 띠고 있다. 이것은 의사소통에서도 불편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관광지나 그리고 식당 등 장소에서 잘못 표기된 한글로 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신어 생성에 대한 연구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